

지난 3,650일은 모두에게 성장과 변화를 선물하였습니다.

『3650, 소통의 여정』에는 센터가 걸어온 10년의 결과물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생 에세이, 심비우스북클럽의 다채로운 운영 방법, 센터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 책은 10년 시공을 관통하는 생생한 기록이며 센터를 나아가게 할 방향입니다. 이번 기념 책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교육센터의 10년 이야기’ 중에서

3650,

소통의 여정

한림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

한림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

10주년 아카이브



3650,

소통의 여정

한림대학교 의사소통센터
<https://cec.hallym.ac.kr>

“한림인의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공간”

한림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는 한림인의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글상담소’를 개편하여 2014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의사소통교육센터에서는 의사소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의사소통 관련 임상 지도 및 상담, 의사소통 교육 모니터링·평가, 의사소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의사소통 관련 제반 업무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비우스북클럽’, ‘심비우스 에세이공모전’, ‘심비우스독서골든벨’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독서와 토론,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비판적 사고와 협력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의사소통클리닉’은 대학생 개인의 글쓰기 역량을 심층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대학생 글쓰기의 전문성과 표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의사소통교육센터는 대학인의 개인적·학문적·사회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공간입니다.

3650, 소통의 여정

3650, 소통의 여정

2024년 12월 31일 발행

편 저 한림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

발행처 도서출판 산책
242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강북길 185
전화번호 033)254-8912
전자우편 book8912@naver.com

비매품
ISBN 978-89-7864-165-4 (03700)

3650, 소통의 여정

의사소통교육센터의 10년 이야기

2014년 3월 ‘우리글상담소’를 확장하여 출범한 의사소통교육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사소통교육센터는 한림인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자기 표현’, ‘합리적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해 심비우스북클럽, 독서골든벨, 에세이·서평공모전, ‘독서토론대회’, ‘한림인토론대회’, ‘의사소통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역량을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심비우스북클럽’, ‘심비우스에세이공모전’, ‘심비우스독서골든벨’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독서와 토론,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비판적 사고와 협력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클리닉’은 대학생 개개인의 글쓰기 역량을 심층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대학생 글쓰기의 전문성과 표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교육센터의 노력은 대학생의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삶을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650일은 모두에게 성장과 변화를 선물하였습니다. 『3650, 소통의 여정』에는 센터가 걸어온 10년의 결과물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생 에세이, 심비우스북클럽의 다채로운 운영 방법, 센

터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 책은 10년 시공을 관통하는 생생한 기록이며 센터를 나아가게 할 방향입니다. 이번 기념 책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1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본질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의사소통교육센터는 이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층적·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 의사소통교육센터 교강사의 열정, 대학혁신지원사업&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지원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발간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50, 소통의 여정』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사소통교육센터는 대학인의 의사소통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2.31.

한림대학교 의사소통교육센터장 심보경

• 차례 •

들어가며

의사소통교육센터의 10년 이야기 _ 4

1

책 속에서 길을 찾다

북클럽, 나를 다듬는 예쁜 조각칼 _ 11

이상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다 _ 16

성공의 진정한 의미 찾기 _ 21

2

열 갈래 길

청춘길일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로 본 기아와 난민 문제 _ 27

고삼차의 악의 평범성: 집단이 개인의 신념을 잡아먹을 때 _ 39

현비우스의 환자의 알 권리 VS 치료받을 권리 _ 51

최강사회가 본 『균중심리』 _ 59

프롤레타리아의 『20대 여자』 _ 71

수료일의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_ 81

우정사의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_ 93

비즈니스사이의 제로 웨이트&업사이클링 _ 107

둥둥둥의 『피로사회』와 『각자도사 사회』로 작성한 둥둥일보 _ 117

무한도전의 육하원칙 플랜형 북클럽 _ 125

3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다

-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84년생 김희민 _ 136
- 4차 산업 혁명과 공생 _ 142
- 경력직 신입, 격리 해제를 꿈꾸며 _ 150
- 팬데믹 장기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_ 162
- 인공지능: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 _ 174
- 인공지능 사회와 그 적들: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기 _ 182
- 한 번쯤은, 인도 _ 192
- 촉감놀이 _ 202
- 개구리가 원하는 여행 _ 218
- 나의 나이대와 나이트 _ 224
- MZ세대란 정말 존재하는가 _ 228
- NG시대 _ 234

4

의사소통클리닉, 교수자들이 돌아보다

- 10년 시공간에서 발견한 것들 _ 241
- 소통과 연대로 빛은 10년의 기록 _ 244
- 손에 단풍 든다 _ 246
-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_ 248
- 학생과의 대화, 또 다른 공부의 시작 _ 251
-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_ 254

5

보너스 트랙: 의사소통클리닉의 흔적

- 의사소통클리닉 살펴보기 _ 259

1

책 속에서 길을 찾다

북클럽, 나를 다듬는 예쁜 조각칼

김상우 바이오메디컬학과

그저 책 읽는 모임인 줄만 알았던 심비우스 북클럽은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 나에게 심비우스 북클럽은 책을 읽고, 토론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주 차별로 선정된 네 개의 책은 나의 가치관과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팀원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사회적 통찰과 개인의 성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북클럽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나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개인 세이에서는 심비우스 북클럽에서 읽은 네 권의 책과 그로 인해 일어난 생각의 변화와 배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클럽 첫번째 주 차와 두 번째 주 차 때 읽은 김현성의 『자살하는 대한민국』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도와주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문제를 분석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만의 기준을 고민했다. 책에서 다룬 물질적 풍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안정된 주거와 사회적인 지위,

건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경쟁 중심적이었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나는 이와 같은 사회적 틀 안에서도 나 자신만의 성취와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책에 대한 토론의 주제로 나온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나에게 큰 좌절감과 현실을 알려주었기에 가장 인상 깊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 특히 경쟁하는 사회는 나에게도 익숙한 주제였으며, 이는 내 성공 목표인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와도 연결되었다.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 사람들과의 경쟁, 졸업 후 대학원을 가기 위한 경쟁, 취업 경쟁까지 대한민국의 경쟁 사회에서 좌절감을 맛볼 수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 차에서는 김주형의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통해,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 책은 나에게 목표 없는 열정은 무의미함을 알려주었다. 특히 나의 목표인 면역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정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책에서 제시된,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단순히 스펙 쌓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의 주전공 바이오메디컬과 복수전공인 빅데이터를 접목한 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 책을 토론할 때 꿈과 목표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흥미로웠다. 나는 실패

와 좌절 속에도 꿈이 목표보다 앞선다면 다시 도전할 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념 속에서 나만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주 차에는 김옥림의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을 통해, 성공한 인물들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를 탐구했다. 이 책에서 나는 다른 요소들보다 결단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느꼈다. 특히 나폴레옹 힐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다.’라는 말은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경험은 단순하게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핵심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의 긍정의 힘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지나친 긍정과 긍정 끝의 현실에 대해 조원들의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무한 긍정이 옳은 사상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도 적당한 긍정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마지막 주 차에는 게일 가젤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에 나온 회복탄력성 지수를 측정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강점이라고 여겼던 긍정성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테스트 결과 46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보고 내 긍정성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저자는 진정한 긍정성은 감정 극복에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옳은 긍정을 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만의 방법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책을 마지막으로 읽고, 지금까지의 토론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주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이번 독서 토론으로 나의 긍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과약 또한 심비우스 북클럽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심비우스 북클럽은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넘어, 나를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 책에서 다룬 주제들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했고,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활동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북클럽에서 배운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쓰며, 성공과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북클럽은 나를 바꾸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향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삶에 녹여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배움은 나의 삶에 자양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과 성취를 이루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심비우스 북클럽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상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다

홍정우 중극학과

나는 이전까지 성공이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많은 스펙을 쌓고 이후에 좋은 직업을 가져 많은 돈을 벌어 좋은 집을 사고, 높은 직급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생각은 북클럽 활동 초기에도 변함없었다.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의 주요 키워드가 ‘성공’이었기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옳은 기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북클럽 1주 차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책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과밀화 현상, 지나친 개인주의와 열악한 서비스업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라고 생각하였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기준이 되는 직업군은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의 소위 ‘사짜’ 직업군 및 전문직이다. 이들과 같은 고부가가치 직종 종사자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일컫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의 생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과거에도 위와 같이 생각해서 장래 희망

을 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과 현재의 장래 희망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꿈은 교사, 무역업자, 공간 디자이너로 바뀌었다. 어릴 적부터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했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꿈을 포기하였고,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현실에 교사라는 꿈을 내려놓았다. 현재 장래희망은 공간 디자이너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 등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여전히 목표 중 하나이다.

각자의 장래 희망을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3주 차에는 김주형의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각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진로)는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나의 목표는 고객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상 고객과 협력 업체와의 협의 및 조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고객의 요청을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 또한 겸비하고 있어야 공간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고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본질이 변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활동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가질 수 있었으며, 중요 가치 파악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각자 장래 희망과 중요 가치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난 후에, 이상적인 꿈을 우선적으로 가진 후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현실 파악 후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꿈을 우선적으로 가진 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상적인 꿈이란 ‘본인의 진로와 목표에 대한 큰 틀’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의 진로와 목표에 대한 큰 틀이 우선적으로 잡혀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면 이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 목표는 저절로 세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처음 세운 목표가 지나치게 현실적이라면 학업 성적 및 연봉 등 다양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본인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현실적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며, 막연히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해야 해야 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의견을 들은 후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목표

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꿈을 가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전 주 차의 개인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4주 차에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 김주형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업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공간의 디테일과 완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통을 바탕으로 공간의 쓰임새와 사용자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고 적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기에 저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의 전공은 중국어학이기에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외부 업체와의 콘택트 등의 비전문적인 영역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공간 디자인의 동향과 나만의 공간 디자인 추구 방향 등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작업물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께서 현직에 종사하시기에 주기적으로 공간 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부족한 부분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나의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0대의 경험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눈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는 20대에게 해외여행을 강력하게 권장하면서, 건문을 넓힐 수 있고, 여행을 떠나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저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중 미국과 대만을 다녀오면서 각국의 문화와 다양성, 생활 방식을 몸소 경험하고 이해하였으며, 언어가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20대가 아니더라도 30~40대 혹은 50대에도 해외여행을 통한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지만 20대의 해외여행은 더 많은 경험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대는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라고 생각한다. 흰 백지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훗날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인격적 성장과 경험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떠날 것이다.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닌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희망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외부에서 이와 같은 북클럽 활동이 진행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 찾기

남나현 사회복지학과

10월부터 11월까지 7주간의 독서토론에서 김현성의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성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성공 기준, 개인의 목표,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토론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현재 대한민국의 성공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팀원 모두가 동일하게 언급하였듯,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이 주로 경제적 성취와 직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곧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 매체나 사회적 통념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가치관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은 성공을 경제적 부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우리 무한도전팀의 팀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러한 성공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성공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이나 정신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아실현과 정신적 만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추가적인 활동으로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과 현재의 목표를 비교하면서 변화의 이유를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많은 이가 어

린 시절 꿈을 잃어버리거나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해 목표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느꼈다. 청소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하다. 나도 과거의 장래 희망과 현재의 목표를 비교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개인의 열망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 김주형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역시 미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이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인드맵을 통해 나의 목표와 필요한 자원, 단계별 계획을 시각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나만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유익했다.

김옥림의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 철학』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인물들의 가치관을 접하며 느낀 공통점은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계발'이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처럼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졌다. 나도 큰 영감을 받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러한 자세를 지켜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게일 가젤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은 성공으로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아무리 계획적이고 철저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기에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책을 통해 내면의 성장 또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독서토론을 통해 성공의 기준이 경제적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배웠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하며,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성공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의 정의를 넓히고, 자신의 목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

열 갈래 길

청춘길일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로 본

기아와 난민 문제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청춘길일
운영 방식	토의 및 토론
운영 일시	2020년 11월 8일(일), 11월 14일(토)
참석자	김은주, 심다희, 안소연, 이성연
장소	ZOOM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장 지글러, 유명미 역,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개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고 토의와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1회차에서는 책을 읽고 나서 인상 깊었던 부분과 아쉬운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후 마인드맵을 작성하였다. 2회차에서는 문제의식을 심화하여 토론 주제를 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성연 책을 읽으면서 지구에는 102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동시에 그렇다면 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기도 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육류에 많은 양의 곡식이 들어간다. 선진국에서는 과할 정도로 육류를 소비하고 있었고 이는 곧 누군가의 식량을 빼앗아가는 행위가 되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난민, 기아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위기의 국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 개발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소연 유럽의 백인 우월주의가 맬서스의 인구이론과 관련된 신화와 결합하면서 ‘기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부여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아 문제가 사회구조적으로 훨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맬서스의 이론과 같은 경우는 기아 발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지, 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이론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었던 유럽, 백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의 근간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은주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말리아 내전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소말리아 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내전은 대중매체에서 많이 나올 만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 전쟁은 서구 열강의 영토 전쟁으로 인해 일어났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고 이러한 생각으로 서구 국가를 위해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이용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프리카 영토를 갈라놓았다.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심다희 소가 기아에 끼치는 영향을 예시를 통해 서술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책을 읽기 전까지 가축 산업이 환경 오염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가축 산업은 기아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들을 사람들의 기호나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태들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성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기아, 난민 문제는 무거운 주제라고만 생각했다. 책을 읽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은 후 그런 생각이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2007년에 출간되어 최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아와 난민의 문제가 어떤 양상인지 궁금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개발국가는 생명과 직결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였다.

안소연 좋은 점은 기아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실제로 들었던 기아 관련 수업에서는 주로 기아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기아 문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서사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이는 기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모금이나 경제적 지원은 당장 그 아이의 어려운 삶을 개선해주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거듭해서 발생하는 기아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주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문제 제기가 뚜렷한 것에 비해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충분히

문제 제기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단순히 ‘기아 문제’만 다루지 않는다. 기아 문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준다. 지난 시간에 인권, 식량과 권력,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을 더 깊이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한다.

책에서는 기아와 난민에 대한 원조나 국제적 지원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면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로 선진국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난민, 기아와 같은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은 원조를 책임져야 할까? 또한 선진국은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걸까? 그동안 선진국의 원조는 원조라는 명목하에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힘이 약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연히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이익과 손해의 개념을 떠나 도덕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울 의무를 선진국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본가들은 욕망을 좇아 피지배 계급들의 수많은 자원을 착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자본가 개

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난민과 기아 같은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의 원조는 의무인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성연 선진국의 원조가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선진국들은 난민, 기아와 같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무기 투기와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하여 저개발 국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전 세계 옥수수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머기가 된다고 한다. 적당한 육류 소비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도하게 육류를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선진국들은 기아, 난민 문제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식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선진국은 저개발 국가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안소연 선진국은 원조를 책임져야 한다. 모든 선진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적어도 기아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 선진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무리한 투기, 삼림파괴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

은 집단이 난민과 기아이다. 경제적 구호 조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아나 난민이 스스로 본인의 삶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구조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단체나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을 것이다.

김은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선진국때문에 난민, 기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주로 유럽 열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유럽 열강들은 근대 시기에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열강이 아니더라도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자원을 선진국이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과 기아에 대한 원조를 책임져야 한다.

심다희 모든 선진국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성장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나라의 자원들을 약탈한 후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그 자원들을 빼겨서 현재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이성연 선진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기아, 난민 문제를 해당 국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아, 난민 문제는 선진국의 어떤 행태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We Are The World’를 외치고 있는 시대인 만큼 기아,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국가가 스스로 재생활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안소연 신자유주의 국가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저자는 이미 세계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성찰하지는 메시지를 던진다. 결국 기아나 난민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바라는 국가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사고 아래 각자의 실리

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고를 해보지 못했다. ‘사람은 왜 욕심이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적은 있지만, 생각이 여기서 그쳐서 갑갑했었는데 저자의 이러한 해석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국가’에 국한하여 책임성을 논했지만, 이미 널리 퍼져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표면적인 자유주의 구조를 떠나서 어떤 사고와 행동 양식이 자유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나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은주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 활동을 중시한다. 선진국은 시장의 자유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아, 난민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심다희 나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기아와 난민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내 기업이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눈감아 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졌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라졌다. 그래서 충분히 기아와 난민 문제를 인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여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후에 이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
홍포를 행사해서 기아가 더 가속화되는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기아와 난민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
다고 생각한다.

고삼차의 악의 평범성: 집단이 개인의 신념을 잡아먹을 때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고삼차
운영 방식	노션(notion) 활용
운영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참석자	김미랑, 성명선, 한채림
장소	ZOOM

노션 활용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활동 기록들이 없어지는 것이 고민이었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다 기록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땅한 도구를 찾고 있었는데, 노션이라는 협업 프로그램이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동시에 수정할 수 있어 북클럽을 운영하기에 적절했다. 그래서 이번 북클럽 활동은 노션을 활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8회 동안 북클럽 활동을 담은 노션 링크를 첨부한다.

<https://www.notion.so/7a40a9a7a6f24811ae2a3b34f17a97d4> PC에서 접속해야 공유 팀 프로젝트를 열람할 수 있다.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퍼트리샤 포즈너, 김지연 역,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 북트리거, 2020.
개요	퍼트리샤 포즈너의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를 읽고, 전쟁 시에 나타나는 ‘악의 평범성’과 현대 사회 내 권력의 상하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악의 평범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의했다. 조원 각자의 감상문을 공유하고,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했다.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김미량 퍼트리샤 포즈너의 『나는 아우슈비츠의 약사입니다』에는 ‘내가 잘 읽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아우슈비츠에 간 사람들 중 90%는 바로 가스실로 데려가 죽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된 것이 고작 100년도 채 안 된(아우슈비츠 수용소 대학살: 1942-1944년) 근대 혹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당하고 잔혹한 지시를 생각 없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 등이 그러했다. ‘가스실’, ‘금니’, ‘구덩이’, ‘시체를 태우는 냄새’ 등의 잔혹한 단어들과 ‘오페라’, ‘파티’, ‘6살의 아이’, ‘하늘색 화분’과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같은 시기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또한,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상관의 지시를 따른 일반적인 공무원’으로, 진정 ‘평범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한 것임이 확실하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나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이해한다. 악이 평범한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사회에서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 집단 내에서 평범한 행위가 있듯, 한 사회 안에서 인정되는 평범한 행위가 있다. 그 사

회의 ‘평범’의 범주에서 보면, 카페시우스는 그저 전쟁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그가 속했던 집단에서는 평범한 사람인지 몰라도 악행은 악행인 것이다. 즉, 그 세계 속의 ‘평범’이 그의 악행(죄)을 사해 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전쟁 시에 자행되는 악행은 ‘살인’, ‘강제적 노동’, ‘폭력’, ‘강간’ 등 현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 대다수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통치자)를 위한 것’이므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악’이 ‘악’이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악’이 사회적으로 평범해질 것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나치들이 유대인을 향해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악의 평범성의 사례이며, 독일인의 대부분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점도 전쟁 상황에서는 ‘악의 평범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남을 증명해 준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악의 평범성의 사례들은 전쟁 시의 악의 평범성의 사례들보다 권력관계가 덜 분명하다. 전쟁 시보다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자의 지시가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집단에서 배척되는 상황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악의 행위로서 발생된다. ‘평범’이 ‘권력’의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달 전 대전 시청의 신규 공무원이 과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직장이라는 권

력관계가 확실한 곳에서 상위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들이 함께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옳은 말을 한 신규 공무원을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왕따’를 시킨 악의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내에도 악의 평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남을 복종하게 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뜻이고, 권력관계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성립하는 지배와 복종의 사회관계’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놓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엄연히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숙하고, 또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고정된 환경에 있어, 같은 나이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미묘한 관계성이 성립된다. 학생들 사이에서 지배와 복종의 권력관계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충분히 많다. 학교 폭력이나 학생 실태에 대한 기사를 보면, 부모의 직업, 경제적 요건 등에 의해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도 악의 평범성의 사례이다. 특히 학교 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악행이다.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는 약 26,900명, 가해자는 약 9,30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가해 이유는 ‘선배나 친구가 시켜서’가 2.9%(320명), ‘다른 친구가 하나까’가 10.1%(920명)였다. 특히 가해 방법에서 ‘단독’이 45%, ‘집단’이 55%로 나타나, ‘집단’으로 저

지른 폭력이 개인으로 저지른 폭력보다 약 10%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현대 사회의 악의 평범성과 전쟁 시의 악의 평범성을 비교하면, 전쟁 시에는 국가 혹은 사회에서 더 광범위하게 악의 평범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의 잔혹성도 더 크다. 또한 지시, 명령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의 평범성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 평범한 사람을 잔혹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악의 평범성이 광범위하게 발현되지 않고, 어떠한 그룹, 조직에서 나타나며, 폭력, 폭언 등과 같이 보다 은밀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형태가 많다. 또한 누군가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미묘한 분위기나 관계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심리가 곧 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혹은 사회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둘 모두 '무사유'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며, 악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할 뿐, 도덕적 행위가 '평범'에 해당하는 사회에서는 악인일 뿐이다.

성명선 아우슈비츠가 설립된 목적과 과정들을 읽으면서 공간 자체가 잔혹한 악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책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 주임 약사였던 카페시우스

에 집중해 책을 읽어 나갔다. 카페시우스는 1946년 5월 25일, 1947년 8월 2일 두 번 석방되었고, 1947년 10월 9일 한 번의 무죄 판결, 1965년 5월 7일 한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65년 5월 7일에 받은 유죄 판결 또한 수많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가벼운 9년 형을 받았고, 수감 생활마저도 2년 반을 채 채우지 못하고 독일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석방되었다.

카페시우스는 사적인 감정보다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아우슈비츠가 포로 수용소이자, 강제 노동자 수용소이자, 죽음의 수용소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용소와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할 당시 주임 약사로 승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1965년 5월 7일 최종 변론에서 ‘아우슈비츠의 주임 약사가 된 것은 오직 불운한 환경 탓이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수감자들은 인간이 아닌 전멸의 대상에 불과했다. 그는 신입 수감자 중에 누구 살리고 누구 죽일지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수감자들에게 줄 약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카페시우스가 처음에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던 이유는 도덕적 양심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일이 범치주의 표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눈에는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나는 일이 합법적이라 여겼다.’, 석방 당시 ‘규율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게 전쟁이다. 아우슈비츠의 방식

과 재판은 모든 것이 달랐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깡통을 진정 평범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카페시우스는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환경을 타하며 전쟁이 자신의 평범함을 앗아 간 것이라고 말한다. 즉 환경에 억압된 나머지 자신의 악이 표출됐고 그 시대에 자신의 악은 평범했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우슈비츠에서 무심하게 사람을 죽이고 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챙기려 했다. 카페시우스는 전쟁 상황에서 인간성 상실의 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악의 평범성은 존재한다. 상하관계가 복종관계로 전환되는 순간, 악은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악한 행동을 합리화한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생각하게 됐다.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군대, 직장 등 사람들이 밀접하게 생활하는 곳에서 주로 일어난다.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가스라이팅이 행해진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친밀함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며 저지르는 악행인 것이다.

현대와 전쟁 상황의 악의 평범성은 상황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와 전쟁 상황(특수 상황)에서의 악의 평범성 모두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무관심, 우리의 무관심, 모두의 무관심이 많은 악을 수용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악을 평범하게 만들고 있다.

한채림 이전의 두 책과는 달리 아우슈비츠의 건설사부터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아우슈비츠가 공단으로 조성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었다. 강제 수용소를 설립한 것도 공단 이익 단지가 우선이고, 그에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인 것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첫 장부터 처음 접한 정보가 많았다. 이러한 나의 무지가 순간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다. 나치와 파르벤, 강제 수용소 관리인들 모두 어떻게든 유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들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 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것이 아닌 소모품을 태워 없앤 것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도 들었다. 금니를 발치하고, 머리카락마저 수거해서 매트리스를 채웠다는 부분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값이 매트리스보다 못한 것만 같아 서글펐다. 이런 행위들을 벌인 나치의 고위 간부들과 파르벤의 임원들이 강경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었고, 히틀러는 채식주의자라는 부분에서 오로지 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때문에 더욱 소름이 돋았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분야의 운동가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면모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내면에 있는 악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수많은 임상 실험이라 부르기도 처참한 일들이 행해졌는지 전혀 몰랐다. 임상 실험이라는 말로 포장된, 가학성에 의한 대량 학살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두 번의 활동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악을 행한 자들의 변명으로 쓰이는 것만 같아 찝찝했는데, 책의 초반에 나왔던 ‘학살을 자행하던 독일군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앓아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른 것일 뿐이기에 악의 평범성에 속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게 되었다. ‘비도덕과 비윤리가 강요되는 시기에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악의 평범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사례들 중에서, 아우슈비츠처럼 전쟁 시의 ‘악의 평범성’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사례는 호주 특수 부대가 아프간 전쟁 중에 민간인을 포함해 3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경험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부사관들과 이들의 후배들이 군사 우수성, 엘리트 주의, 특권을 왜곡해 부대 문화를 형성하고 증폭시킨 점과 신입 대원이 이른바 ‘신고식 **bleeding**’ 관행에 따라 상급자의 강요로 포로를 사살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나치 전범의 악의 평범성과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호주 국방부 참모총장이 ‘살인

혐의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일어난 일로 미화할 순 없다'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로써 악의 평범성이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권력의 상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평범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곳은 군대이다. 군대야말로 집단에 소속되어 속되게 말해 '까라면 까'라는 식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대 내 따돌림 사건이나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들이 뉴스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문제도 악의 평범성에 포함될 수 있다. 학급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친구들은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도 현대 사회의 악의 평범성을 보여 주는 사례인 것이다.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은 주로 방관자들이 많기는 하나,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 방관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악과 무관심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전쟁 시에 벌어지는 국가의 만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악의 평범성은 비단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도 집단이 개인의 신념을 잡아먹어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많다. 전쟁 시의 악의 평범성과 현대의 악의 평범성은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르다. 현대의 악의 평범성은 대체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

보다는 어떤 집단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그 규모가 작고, 그만큼 정교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의 악의 평범성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게 물들고, 쉽게 돌아오는 성질을 갖는다.

헌비우스의 환자의 알 권리

VS

치료받을 권리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헌비우스
운영 방식	독서 토론
운영 일시	2021년 10월 20일(수)
참석자	이자현, 이채현, 전서현, 현동준
장소	교동 탐앤탐스

독서 토론 탐구 활동

읽은 책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책세상, 2007.
논제	소설 속 노인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재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실제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동의 없이 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타당하다(자현·채현) VS 타당하지 않다(동준·서현)

찬성 측 입론

채현 환자의 권리 중에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신 질환자의 경우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은 정도의 의사 결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알 권리보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현 정신 질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알 권리보다 치료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므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신 질환자들은 자신이 질환자인지조차 분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행위 무능력자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할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 등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신 질환자 또한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반대 측 입론

동준 환자에게는 어떤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치료라고 하여도, 정신 질환 환자라고 하여도 최소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은 알아야 합니다.

서현 저는 소설 속 할아버지는 현재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피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치료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사회 전체가 깊어져야 하는 시대적인 아픔인데, 지금의 상황은 할아버지를 치료할 때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 보게 하는 것이 아닌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환자를 속이는 치료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반론

채현 서현 씨가 트라우마 치료에 관해서 노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회피하고, 이에 제대로 맞서지 않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노인이 트라우마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이미 정신이 심하게 붕괴 되어 지금처럼 가상의 상황마저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토론 주제가 트라우마 치료법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 권리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서현 씨의 입론은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현 동준 씨는 환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리 없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강행을 해서라도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반론

서현 자현 씨의 이야기 중에 치료를 강행하지 않는 것은 정신 질환자가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는 토론 논제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방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현 씨가 헌법의 행위 무능력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

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트라우마 환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환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준 자현 씨가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논제가 ‘환자를 속이면서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강행해야 하는가?’인데 논제 속에 이미 환자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도, 일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그 법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일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이 환자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 등의 3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술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제한은 이 아이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현 씨의 해당 발언은 논제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동준 씨의 의견 중에 ‘다른 치료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이미 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는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현 씨가 반론에서 행위 무능력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행위 무능력자인데 소설 속 할아버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치료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라면 행위 무능력자인 어린이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아무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더 큰 안전을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준 씨가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권리 침해인 동시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권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침해받는 예시를 들고자 한 것이므로 소년법인지 행위 무능력자에 관한 법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채현 씨의 발언 중에 노인은 트라우마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일 같이 강에서 혼장을 찾는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까요? 자현 씨의 ‘알 권리가 일반 환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정신 병원에 내원한 알코올 중독자 환자에게 의사가 감금 치료를 강행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 환자를 풀어 줄 것을 요구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사 마음대로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이나 감정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법률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현 씨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사회가 본 『군중심리』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최강사회
운영 방식	토의 및 토론
운영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5월 24일(화), 5월 26일(목)
참석자	류연서, 신유림, 양선준, 윤주희
장소	구글 미트, CLC스터디룸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귀스타브 르 봉, 강주현 역, 『군중심리』, 현대지성, 2021.
개요	2권의 책(『환경의 역전』, 『군중심리』)을 집중적으로 읽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총 3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는 책 설명회이다. 설명회에서 각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각 조원들의 감상평을 나누는 방식을 취했다. 두 번째는 책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 주제와 질문을 정하고, 이 질문에 대해 각 조원이 답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책 내용을 우리의 실 생활에 반영한 예 등을 각자 정하고 정리하여 의견을 나누는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으로 총 9번에 이르는 북클럽 모임을 진행했다.

토의 내용

군중심리 토의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류연서 군중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유하는 가치는 사실상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제시한 가치에 불과하다. 즉, 군중 무리는 리더의 영향 아래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중은 자신의 의견을 마치 스스로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그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확인과 반복, 그리고 전염을 통해 위신을 얻은 리더, 즉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집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신유림 나는 군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른 군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다른 비슷한 군중 집단이든, 자신이 속한 동일한 집단이든, 군중은 다른 군중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계속해서 느껴왔다. 물론 군중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의 말, 혹은 그들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대의 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상의 군중 행동을 들 수 있다. 기사나 영상의 댓글창, SNS를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과도하게 충돌하기도 하고, 반대로 다수가 동의
를 표현한 의견에는 쉽게 동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군중은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
러한 점에서 나는 군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은 같거나 유사한 군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군중의 의견이 커지
기 전에 미디어나 콘텐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미디어
와 콘텐츠는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한다고 느꼈다. 반면, 군중이 가장 많
이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다른 군중이기에, 그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양선준 나는 군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핍
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에게 결핍되었던 자유,
혹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군중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공약으로 내
세우는 것처럼, 군중은 자신들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 반응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에서 언급된 민족성과 전통에 과도하
게 부합하는 것들도 군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 선동
된 군중의 결핍이 충족되면 군중은 잠시 가라앉는다. 그러나 곧 새
로운 결핍을 찾아 다시 선동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무한 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중에게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바로 결핍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윤주희 나는 군중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군중은 항상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기를 반복한다. 이는 군중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 자신들의 환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은 환상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환상이 사라진다면 군중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 환상은 비도덕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으며,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군중은 자신들이 품은 환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는다. 그 결과,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

군중은 과연 도덕적인가?

류연서 나는 군중의 도덕성에 대해 도덕적이라고도, 비도덕적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군중은 도덕적인 측면과 비도덕적인 측면의 양가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본다. 왜냐하면 군중은 때로 올바른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선행이라 불리는 행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전 체주주의에 사로잡혀 예상치 못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결국 군중의 도덕성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군중을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중은 도덕적일 수도, 비도덕적일 수도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유림 나는 개개인이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군중은 비도덕적인 성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 집단에서 도덕적인 개인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언젠가는 비도덕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개인은 선한 의견을 전파하기보다 비도덕적인 의견에 물 흐르듯 쉽게 휩쓸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불평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집단의 단합은 금방 금이 가고 언쟁과 함

께 혐오와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퍼져나간 비도덕적인 견해와 사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만, 이를 제거하는 데는 오히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평생의 숙제로 남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 사회에서 분열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이기심으로 인해 배려심은 사라지고, 비도덕적인 군중 집단만이 남게 된다.

양선준 세상에 100% 악하거나 선한 군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군중이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비도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아무리 선한 개인이라도, 같은 민족성과 전통을 공유하며 살아온 군중 속에 섞였을 때, 그중 한 악한 개인이 결핍된 무언가를 이용해 선동을 시작한다면 선한 개인도 쉽게 물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군중이 비도덕적일 확률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윤주희 나는 군중이 개개인의 합으로 이루어지지만, 군중을 개개인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군중은 개개인의 합이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제2의 존재인 ‘군중’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개인의 도덕성과 군중의 도덕성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군중은 군중 밖의 사람이나 군중 안의 사람 모두의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선동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개인은 군중이라는 다수 집단 속에 숨어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다. 이러한 점에서 군중은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군중심리

류연서_정치, 권력에서의 군중심리

20대 대통령 선거로 알아보는
정치인들의 지지와 정치, 권력에서의 군중심리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군중이라는 집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그 답은 확언과 반복을 통해 형성된 위신에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군중을 움직이고자 결심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확고한 사상을 확언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면서, 사상이 맞든 맞지 않든 대중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위신을 형성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자극적인 타이틀과 사상을 주장하며, 서로를 갈

라치기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인들이 군중심리를 철저히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현 정치의 가장 큰 키워드는 ‘갈등’이며, 정치인들은 군중심리를 갈등의 도구로 삼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선구안을 가지고 후보들의 공약이 정당한지, 주장하는 바가 진실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유림_전쟁에서의 군중심리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아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군중심리

21세기는 과학 기술과 산업 영역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과학 기술을 활용한 정보전과 통신망 차단 등이 이루어지며, 현대적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은 현대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21세기의 전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며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공격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헬기 두 대가 기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러시아 측의 가짜 깃발 작전으로 보는 보도도 있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가 공격한 것처럼 조작해 자신들의 공격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다. 이는 쌍방 간의 공격임을 주장하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로, 비판력 없이 정보를 수용하려는 군중심리의 특성을 자극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위 여부가 판별된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한 후 행동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선준_종교와 군중심리

중세 시대 마녀사냥으로 알아보는 종교에서의 군중심리

14세기부터 17세기 중세 시대는 종교 중심적 사회였으며, 기독교를 절대시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광신적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이란 다수가 개인을 대상으로 의심이나 검열 없는 판단,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화형하거나 잔인하게 고문하는 등, 종교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군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개인의 판단력이 얼마나 쉽게 흐려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 누명이 큰 파장을 일으킨 마녀사냥은, 책에서 언급된 ‘군중은 충동의 노예’라는 말을 잘 반영하는 사례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다수가 과도한 피암시성과 편향된 균중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종교 또한 광신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주희_소비에서의 균중심리

밴드왜건 효과로 알아보는 소비에서의 균중심리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 선 밴드가 탄 마차를 밴드왜건이라고 한다. 이처럼 밴드왜건을 뒤따르는 긴 행렬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선동하여 이를 우세한 것으로 부추기는 현상을 밴드왜건 효과라고 한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밴드왜건 효과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는 “이번 시즌 마지막 세일”, “오늘 방송만을 위한 한정 구성”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매진 압박을 강조하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또 고무장화의 경우, 단순한 고무장화임에도 색상과 디자인을 다양하게 바꾸고 이름을 ‘레인부츠’라는 영어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편승효과에 따른 수요의 증대라 할 수 있다.

밴드왜건 효과는 균중을 선동하여 특정 대상을 선호하게 만든 결과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도 불구하고 수요곡선은 여전히 우하향 형태를 유지한다. 전통적 경제이론은 소비자의 소비 의사결정이 다른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타인의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며, 대다수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군중심리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전체 집단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는 편승효과를 겪는다. 나는 개인이 이러한 밴드왜건 효과, 즉 군중심리의 환상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을 통한 충동구매를 피하고, 핫템이나 유행템과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지양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롤레타리아의 『20대 여자』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 방식	책 내용에 대한 질문지 작성과 집중 토의
운영 일시	2022년 5월 4일(수), 5월 11일(수)
참석자	이아로, 김수연, 최가은
장소	ZOOM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국승민 외, 『20대 여자』, 시사IN북, 2022.
개요	대상 텍스트를 각 장으로 나눈 뒤, 매주 2~3장을 선정해 읽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모임 전에 토론할 내용과 주제를 미리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각 질문에 대한 배경이 될 만한 정보나 지식을 조사해 답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실제 20대 여성인 토론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책의 내용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친구와 관계가 변화된 적이 있는가?

이아로 아마도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나에게 “왜 임신 콘셉트를 한 여자 아이들은 없는 거냐”며 낄낄대던 남자 선배와는 그가 졸업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당시 나는 한참 어린 후배였기에 그런 불쾌한 말을 듣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그 말이 면전에서 들은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 조롱조의 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태도와 발화를 하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 반면, 비슷한 표현을 쓰더라도 정말 몰라서 했거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느껴지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지 않았다. 물론 실망스럽긴 하지만, 내가 차분히 설명하거나 설득하면 조용히 들어주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니, 반성하고 바뀌어갈 의지가 있다면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수연 나는 최대한 설득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도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곤 한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들과 친밀감을 쌓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특정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실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들과 소원해지는 것 같다. 또한, 나의 인생 가치관이나 방향성도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지는 않더라도,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가은 이성 친구가 내 앞에서 혐오 표현을 한 적은 없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변한 경험은 없다. 하지만 여성혐오 표현을 쓴 동성 친구와 떨어진 경험은 있다. 나의 한 동성 친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말을 종종 했는데, 그중 일부가 여성혐오적인 내용이라 불쾌했다. 이를 지적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 친구가 나를 평가하며 여성혐오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험이 얼마나 유쾌하지 않은지 실감하며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된 것 같다.

GS25캠핑가자 포스터에 남성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포스터로 인해 실재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에 위협을 받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는가? 단지 책에 나온 홍성수 교수의 말처럼 기분이 나쁠 뿐이다. 반면,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와 같은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논란은 그들의 정체성과 실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게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는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의 경우 ‘김치녀’나 ‘된장녀’와 같은 프레임은 여성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그들의 삶을 타인의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받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GS25의 포스터는 이러한 맥락을 가지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내포가 담겨 있지 않았고, 누군가가 억지로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기분 나쁨을 표현하며 사과를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나는 GS25 캠핑가자 포스터를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수연 그렇지 않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을 특정 이미지로 제한하며,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편견이 담긴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 포스터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단지 손 모양 하나일 뿐이다. 도대체 그 손가락 하

나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아로 학우의 말처럼, 오히려 이를 혐오 표현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이를 휘두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소대표된 소수 남성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포스터를 줄줄이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성 소수자, 어린이 등을 향한 혐오 표현이 담긴 홍보물에 대해 기업들이 이토록 빠르게 반응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최가은 나 역시 GS25 캠핑 가자 포스터에 남성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집단’들이 혐오 표현과 기분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다. 혐오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포스터가 혐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려면, 이 포스터로 인해 누군가가 삶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포를 경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S 포스터에는 그런 맥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혐오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포스터가 혐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직후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제작한 사람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누가 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대의 정체성 정치(인종으로의)가 대두되었으나 한국은 20대만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진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이아로 최근에 와서 20대에서 젠더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졌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체성 정치가 한국 사회에 존재해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 정치는 지역 감정이 크게 작용했으며,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일이 흔했다. 물론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중간 지역은 다소 모호한 위치에 있었지만, 세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지역이라는 정체성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페미니즘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논의가 20대라는 세대론으로 치환되어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김수연 하지만 이 통계는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 정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30대까지는 지역감정이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20대부터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나만 해도 지역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고민은 있을지언정, 지역감정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페미니즘 이슈가 부상하면서 정치 구도가 뒤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두드러

졌으며, 20대부터는 정치 방향성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최가은 아로 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정체성 정치는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20대가 이러한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 같다. 20대의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들의 관심사가 젠더와 페미니즘으로 집중된 영향도 있겠지만, 동시에 20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젠더 문제와 더불어 대두되는 세대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

김수연 아무래도 젠더론과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세대론인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서 젠더론이 크게 부각된 것과 동시에,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젠더 이슈로 인해 또다시 분열된 것처럼 프레임화되었다.

이아로 아무래도 우리가 다음으로 선정한 책 신진욱의 『그런 세대는 없다』를 읽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 명확해질 것 같

다.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책을 통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선 젠더 갈등이 세대적 담론으로 등장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기해 보았다. 가은 학우의 말대로, 청년 세대는 젠더로 인해 남성과 여성으로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프레임화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프레임이 실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20대 여성 중 강한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많고, 2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듯, 강한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20대 여성은 주로 대학에 다니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젠더 갈등의 선두에 선 20대 여성들이 과연 모든 20대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고졸, 중졸, 혹은 노동자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다른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이분화된 대립 구도로만 젠더 갈등을 그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20대 내에서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 보다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수연 그렇다. 이 지점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물론 젠더 갈등은 현실이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양한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내 주변만 보더라도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의 환경

과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단순히 20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일반화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대나 젠더 하나만으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단일화해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최가는 세대론에서는 정체성이 몇 가지 범주로 단순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세대와 부모 세대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논의하기보다는, 각 세대 안에서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 주변만 보더라도 같은 ‘세대’ 안에서 조차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정도에 따라 알바를 해야 하는지, 인턴을 할 수 있는지, 휴학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바로 일터에 뛰어드는지 등으로 삶의 방향이 크게 나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같은 세대로 묶어 논의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세대론을 분석할 때는 이런 차이점들을 경계하며 더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

수료일의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수료일
운영 방식	토의 및 토론
운영 일시	2022년 10월 11일(화), 11월 2일(수), 11월 9일(수)
참석자	남나현, 김채은, 박성현, 이지윤, 김가연
장소	한울회 동아리방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박중철,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홍익출판미디어그룹, 2022.
개요	죽음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영화 <코코>와 책 3권(『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천개의 바람이 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을 읽고 북클럽을 진행하였다. 첫 모임은 책과 영화를 보기 전에 죽음에 대한 각 조원들의 생각을 나누고, 이후 영화와 책을 읽은 감상평과 책 주제로 만든 질문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총 7회에 걸쳐 만났으며,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에 대해서는 총 2주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

남나현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죽음’은 가까이에 있는 존재였다. 고양이, 토끼, 금붕어 등 다양한 동물을 키워왔던 나는 가족과도 같았던 애완동물들의 죽음을 내 곁에서 맞이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직접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했을 때는 정말 무섭고,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은 항상 무겁고 어두운 것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항상 떠나 보내는 입장이었던 나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즉 떠나는 입장의 죽음은 어떻게 궁금해졌다. 어쩌면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김채은 책을 읽기 불과 며칠 전 문상을 다녀왔다. 친한 언니와 오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23살, 25살로, 나와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어머니를 잃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언니를 안아주었는데, 그 작은 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정말 어떡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만약 나에게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될까. 죽음이란 삶의 반대말이

라고들 하지만, 그 차이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한 걸의 차이에 불과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온 작은 인연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깊이 느꼈다.

박성현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죽음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이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슬픔과 우울이 죽음과 연관된 기본 감정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고, 사후 세계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으며, 이전처럼 암울한 감정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지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친척이든, 뉴스에서 접한 일이든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며 죽음이 나와 멀리 떨어진,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은 한 곳 차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에게 삶과 죽음은 어쩌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나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는 없겠지만,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은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가연 죽음이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못한 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다. 즉, 원치 않은 사고나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을 행한 자로 구분된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살해와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이 타인의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한편, 살인자와 자살자는 누군가(타인 혹은 자신)를 죽임으로써 한 생명을 없애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남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본다. 살인자는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선택을 했고, 자살자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지만, 살인자의 희생양과 자살자의 주변인 모두가 큰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느낀다.

OECD 국가 중 자살을 1위인 대한민국,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채은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살을 단순히 수치적인 데이터로만 파악하고, 자살의 배경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데이터의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자살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인이 겪었던 힘들을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죽음이 고통 없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마서 감각을 무디게 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맨정신으로 손목을 긋거나 목을 매거나 연탄을 피우는 등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상적인 죽음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말이다.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우리는 편안함과 부를 누리게 되었다.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이해하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식도 늘었다. 그러나 발전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업혁명을 겪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으며,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더라도 죽음의 위협과 우울증을 겪어온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기 없이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단순히 먹고사는 걱정만이 주요 문제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심리, 경영 등 더 복잡한 요소들이 중요해졌다. 기술 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발전된 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 기술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박성현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모든 연령층에서 경쟁 체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청소년기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제도가 중심에 있다. 그러나 수능 이전에도 중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별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반 친구들과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입시를 위해 계속된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쉬는 시간이 사라지고, 끝없는 경쟁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일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청년기에는 취업 경쟁이 시작된다. 대학 입학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 공모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는 데 전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취업시장에서는 경력직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은 필요한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기의 사람들은 설 수 없는 환경에 놓이고, 이로 인해 청년 자살률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

노년기에는 고독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비율은 높은 편이며, 통계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결국, 전 연령층에서 다양한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부족하다.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바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자살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살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가연 우리나라는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나는 그 주요 원인을 경쟁과 타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생존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죽음을 외면하며, 이로 인해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경쟁 속

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했다더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 꺾어야 했던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나, 자신의 결과가 남들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 실패감을 느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자살의 근본 원인은 남들과의 끝없는 경쟁에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성적, 학업, 연봉, 배우자, 자식 등 모든 면에서 타인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 사람의 행적이 더 낮고 더 좋다고 판단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긴장된 삶이 지속된다. 특히, SNS의 발달은 남들과의 비교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얻어야 할 물건이나 성취의 평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자신이 남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자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을 선택할 만큼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살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기에, 나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찾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를 단번에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스스로가 먼저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고, 남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타인을 칭찬할 때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스타일이나 성격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다면,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희석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나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이러한 높은 자살률이 자본주의 국가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성장한다. “가장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 “가장 뛰어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등, 이 사회에 사는 모두가 경쟁에 치이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약 뒤처짐이 느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좌절감과 허망함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경쟁 사회의 구조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청소년기는 민감한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쟁 사회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모든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늘리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살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지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타인보다 앞서 나가며 느끼는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개인의 재산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만 가져온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로 간주하는 시선이 생겨났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패배감과 우울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감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충분히 포용적이지 못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조차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 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한다.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노년층의 자살 문제가 덜 심각한 것도 아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들 역시 자살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전 연령층에서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로, 이는 전체 원인의 38.4%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견과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회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그 고통을 무시당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쟁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사회의 경쟁 구도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정사의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우정사
운영 방식	토의 및 토론
운영 일시	2022년 10월 29일(토), 11월 12일(토) 11월 26일(토)
참석자	신유림, 이유빈, 최소은
장소	구글 미트, 한림대학교

북클럽 활동 내용

읽은 책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톰 리벳카택, 홍한결 역,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김영사, 2020.

개요 북클럽 대상 텍스트로 총 2권의 책(『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정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2차례의 ‘책 설명회’를 가졌다. 각 책을 팀원들이 분배하여 정독한 후 내용을 소개하고, 감상평을 갖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책 내용을 반영한 질문을 상정하고, 각 팀원의 심도 있는 감상평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 및 실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 및 교환, 주장과 반박 등을 진행하였다. 3단계를 거치면서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깊은 파악이 가능하였다.

1단계: 조원들의 생각과 느낀 점

신유림 피게레스가 제시한 행동 방침들은 나에게 간곡한 호소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날 곳도 없는 우리에게 피게레스의 호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나 역시 피게레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 유로 안일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게레스가 강조한 단호한 낙관, 무한한 풍요, 철저한 재생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유빈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가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또한, 못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은 책을 읽기 전에는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본 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물 재분배를 놓

고 부유층과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다. 현재 사회에서도 계급 갈등이 존재하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발생할 갈등 역시 이와 유사하다는 점이 사회학도로서 크게 와닿았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2단계: 토의 및 토론

플라스틱 사용 규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유림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한다. 탄소 배출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지구 탄소 배출량의 13%가 플라스틱 생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100년에는 이 비율이 5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이 189개의 석탄 화력발전소 배출량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의 밀접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거의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는 인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

치는데, 소각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해양 생물이 이를 섭취하게 되고, 결국 인간이 다시 이를 섭취하며 건강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생산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리배출이나 플라스틱 사용 지양과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을 조절해야 하며, 당장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과 같은 대안 재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도 이미 6가지 일회용품 항목의 단계적 생산, 수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175개국이 Global Plastic Treaty 2024 합의 목표를 세워 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와 개인 모두가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규제하거나 대안 재료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정부와 우리가 당당히 나서야 하며, 평소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기업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유빈 규제를 시행하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소비를 지양하며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려 노력하더라도, 항상 이를 소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분해되면 자연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대체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려면 대체품을 충분히 제공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행하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반발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분해 문제가 해결된 효과적인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소은 나는 현대인들이 플라스틱을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플라스틱 규제의 영역

을 확대하고 대체제를 신속히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종이 빨대 도입,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 무라벨 생수 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정하고, 현재 기술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완전한 대체는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운 만큼,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기존의 파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현명한 플라스틱 규제와 대체재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과 기후 위기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신유림 우리의 일상은 기후 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니, 관계가 없는 부분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와 무관한 영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향유하고 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기후 변화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계, 즉 자연은 인간에게

삶의 터전과 먹을거리 등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은혜를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되갚았다. 산업혁명 이후의 여파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 임업, 교통, 수송, 건물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모든 것이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이 기후 위기와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는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 등)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 전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유빈 기후 위기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후 위기는 우리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계절이 점차 사라지고 여름철 강수량 증가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이는 기후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 위기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 배출 등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인식을 전환하고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은 책에서는 기후 위기의 첫 번째 실질적인 징후로 공기의 질 악화를 꼽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확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마스크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그 이전부터 높은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적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날씨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해야만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상황에 무너지고 둔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나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피게레스가 책에서 제시한 미래를 살펴보면, 대기오염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이미 경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3단계: 현실 반영 및 실습

자신이 생각하는 '기후친화적인 삶^{eco-friendly}'이란 무엇인가?

신유림 내가 생각하는 '기후 친화적인 삶^{eco-friendly}'이란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속한 환경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일상에서의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후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생각한 기후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소모하며, 사용 후에도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개도국으로 수출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설령 분해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환경에 남아 해양 생물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플라스틱 소비 자체가 환경에 해로우므로, 나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며, 텀블러, 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려 한다.

둘째, 먹을 만큼의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음식 낭비는 에너지와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한다. 음식의 대량 소비는 대량 사육 및 생산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탄소발자국을 남긴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채식 위주의 식사를 늘리는 것이다. 육류 및 유제품 생산은 메탄가스 배출과 탄소발자국을 증가시키며, 기후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는 육류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이고 콩고기, 두부, 채소 등의 채식 기반 식단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 위기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과 우선순위를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기후 친화적인 삶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유빈 기후 친화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변화해가는 기후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실천뿐 아니라 기업, 정부와 같은 단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태도는 버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후 친화적인 삶이란 기후 위기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행동을 찾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소 내가 생각하는 기후 친화적인 삶은 일상에서 환경을 먼저 떠올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생각은 최근 젠더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뒷받침된다. 과거에는 젠더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젠더 감수성’, ‘차별금지법’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후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먼저 기후 위기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정부나 단체,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만약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실천하게 된다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내 플로깅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고 느낀 점

신유림 기후 친화적인 삶을 단순히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였다. 친구들과 함께한 교내 플로깅 프로그램은 그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활동이였다. 플로깅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특히, 담배꽂초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하수구 근처나 나뭇잎 사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쌓인 쓰레기들도 많았다. 이 경험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 인식 수준은 아직 그에 걸맞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경험은 기후 위기 대응

은 정부나 대기업의 몫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명확히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을 위해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활동은 기후 친화적인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빈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쓰레기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충분히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들을 보았을 때 이 작은 쓰레기들이 모여 쓰레기 산을 이루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쓰레기 양이 많았다. 특히 담배꽂초가 정말 많이 버려져 있었고, 그 외에도 일회용품 같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느낀 점은, 앞으로는 나부터 길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고 최대한 분리배출을 잘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소은 나는 살면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본 경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길가에 많은 쓰레기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

나간 적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워 보니, 한 번도 나서서 주워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줍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모두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했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후회스러웠다. 즉, 플로깅 활동은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았지만, 스스로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었다.

비즈니스 사이의 제로 웨이스트&업사이클링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비즈니스 사이
운영 방식	제로 웨이스트&업사이클링
운영 일시	2023.10.12.(목)/10.19.(목)/10.26.(목)/11.1.(화)/11.9.(목)/11.16.(목) /11.21.(화)/11.23.(목)/11.27(월)/11.30(목)
참석자	강선민, 강유란, 김한나
장소	카페, 알맹상점 서울역점, 의사소통교육센터 상담실, 망원시장, 망원한강공원

북클럽 활동 방법 | 제로 웨이스트&업사이클링 활동

읽은 책	제이슨 히켈, 김현우·민정희 역,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창비, 2021. 소일,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나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판미동, 2021. Eco-STEAM 연구회,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테크빌교육, 2022.
------	---------------------------------------------------------------------------------------------------------------------------------------------------------------------------

업사이클링 & 제로 웨이스트 활동 경험 나누기

커피 탈취제 만들기와 제로 웨이스트 슝 알맹상점 방문

강선민 Eco-STEAM 연구회의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를 읽고 다양한 업사이클링 방법을 배웠다. 그중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커피 찌꺼기와 관련된 챕터였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집 주위 카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탈취제를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를 가져와 물기를 날리기 위해 볶는 과정에서 향긋한 커피 향이 기분을 좋게 했다. 다시마 껍에 반질 채워 두 번 담아서 스테인플러로 닫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 실을 넣어 묶으면 완성되었다. 커피 탈취제는 만들기도 간편하고 생각보다 향기도 많이 나서 좋았다. 탈취제를 만드는 내내 향긋한 향기가 나고 결과물도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 마지막으로는 영어로 우리의 북클럽 팀명 ‘비즈니스사이between businss’를 적어 넣었더니 더 의미 있었다. 내 손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것 같아서 환경보호를 향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었다.

강유란 커피 찌꺼기는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화분이나 연필꽂이 같은 딱딱한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맹상점에서 처음 보고 알게 되었다. 예전에 엄마 덕분에 커피 찌꺼기가 방향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커피탈취제 만들기

준비물: 커피 찌꺼기, 다시마 팩, 가위, 스테인플러스, 펀치

1. 축축한 커피를 볶거나 햇빛에 바짝 말린다.
2. 다시마 팩에 커피 찌꺼기를 넣고 접는다.
3. 새로운 다시마 팩에 커피를 이중으로 넣고 끝을 스테인플러스로 짚는다.
4. 여분의 공간에 펀치로 뚫고 실을 엮어 완성한다.

책을 읽으며 커피 찌꺼기가 방향제뿐만 아니라 화분, 연필꽂이 등 많은 곳에 재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다. 친언니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찌꺼기를 받아와서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커피 찌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로 웨이스트 숍 알맹상점 방문 후기

김한나 SNS에서 다회용 지퍼백 활용 릴스를 보면서 지퍼백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알맹상점과 같은 제로 웨이스트 숍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맹상점은 ‘착한가맹점’으로 운영되어 NH농협카드를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NH농협카드를 쓰는 사람으로서 소비를 하더라도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도 신기했고 연필꽂이 등으로 다양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세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생필품은 용기를 가지고 와 살 수 있었는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귀여운 열쇠고리들도 많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구경하러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아직도 배출하고 있다. 소일의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에서는 2050 기후 위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예측한 상황과 심각성을 알려 주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비가역적으로 된다. 즉,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지구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 감염병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 결국 우리 손으로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를 위해, 지구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지속 가능한 환경 융합 강의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에게 지구를 아껴야 하는 마음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커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커피 점토, 화분, 연필꽂이, 탈취제 등으로 다양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망원시장 공유 그릇 대여로 제로 웨이스트 경험하기

강선민 망원시장의 공유 그릇 대여는 망원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공유 그릇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들이 포장하여 먹을 수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다. 망원시장의 공유 그릇 가게는 팻말이 세워져 있거나 벽에 공유 그릇 포스터가 붙어있어 공유 그릇 지도 혹은 가게에 공유 그릇 표시가 있는지 잘 확인하면 된다. 공유 그릇 대여 운영에 참여하는 가게에 방문하여 음식을 고른 후 담아 달라고 말하면 가게에 준비된 공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준다. 구매 후 카페 'M'으로 가서 포장한 음식들을 먹은 후 카페에 공유 그릇을 반납하면 된다. 카페 내부에는 제로 웨이스트 관련 자료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음식점 정보 및 다양한 책이 있어서 식사를 한 후 독서할 수 있다. 카페 내부에 테이블도 넉넉하고 직원분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용기를 가져와서 장을 보면 쓰레기 봉투를 주는데 쿠폰 10장을 모아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교환할 수 있다.

김한나 시장에서 제로 웨이스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유 그릇'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음식을 주문할 때 공유 그릇에 담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매장에 준비된 그릇에 넉넉히 담아 시장의 정을 느낄 수 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닭강정, 떡볶이, 고추튀김 등의 음식을 공유 그릇에

담아 맛있게 먹었다. 떡볶이가 뜨거워서 비닐에 담아 주려고 하셨는데 유란이가 가방에 담아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해서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직접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기에 다양한 곳에서 공유 그릇 운영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각각의 지역 시장에서 공유 그릇을 운영한다면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상권끼리 상호 작용하며 성장하는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도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줄였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친구들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값진 추억으로 기억될 듯하다.

강유란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그릇’에 담아 가져가서 먹는 경험은 처음 해보았다. 지정된 카페인 ‘카페엠’에 가져가서 먹어야 하며 먹은 후에 카운터에 돌려주면 카페 직원이 정리한 후에 직접 포장해 왔던 가게에 다시 공유 그릇을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음식을 포장해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편리했다. 우리는 총 세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 포장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점포에서 공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망원시장처럼 다른 시장들도 공유 그릇 서비스를 도입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선민 소일의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를 읽은 후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활동으로 시장에서 공유 그릇을 통해 용기를 내어 챌린지를 할 수 있었기에 그 의미가 더 컸다. 처음 사장님께 가서 공유 그릇으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민망한 마음도 있었지만 사장님께서 오히려 반가워 하시면서 서비스도 주시며 참여하는 가게가 많으니 여러 가지를 사서 카페 가서 야무지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장에서 공유 그릇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니 감회가 새달랐다. 다양한 상점에서 공유 그릇을 실천하고 있어서 시장이 잘 운영되고 매출을 올린다면 시장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좋은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페एम에서 우리 말고도 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망원동은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숍과 비건 음식점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환경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장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실천하고 계셨다. 집에서 용기를 가져와서 포장해 가면 챌린지 쿠폰을 주는 날을 만들어 쓰레기 봉투를 주는 캠페인도 하고 있다.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캠페인이 실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즈니스 사이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 소감 나누기

강선민 이번 북토크에서는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였다. 친구들과 각자 다른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실천 방안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소일의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는 우리처럼 ‘제로 웨이스트’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책으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정의와 원칙을 배우면서 나에게서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 모두 처음이라 신기한 점도 많았고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토크를 통해 해본 제로 웨이스트 슱, 플로깅 등의 실습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연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 탐구해 보았다면 Eco-STEAM 연구회의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안들을 스스로 해보고 교육하는 법을 배웠다.

총 10회의 북토크를 진행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분야 등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들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리사이클링, 플로깅, 노푸, 프리사이클, DIWO 등을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새로 도전해 보는 것도 많아 익숙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혼자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하고 실천해 보지 않았을 것을 같이 하다보니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책을 빨리 읽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대해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김한나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정독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자연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의하고 마인드맵이나 퀴즈, 신문 스크랩 등 다양한 방법들로 파고들다 보니 매주 심비우스 하는 날이 재미 있었다. 우리는 책을 읽은 후 직접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실행으로 옮기기가 엄청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매주 하나씩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Eco-STEAM 연구회의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에서는 지구를 살릴 방안들을 학습하고 환경 놀이로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책을 읽고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누군가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분리배출은 왜 해야 해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술술 설명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일의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에서는 각자 책에 있는 내용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았다. 나는 동물의 털을 이용한 바늘방석을 만들었다. 바늘방석은 동물들의 털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키우는 애완견의 털을 빌렸다. 안 입을 옷을 활용하여 작고 귀여운 바늘방석을 완성해 보았는데 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다. 서투른 바느질도 다시 쓰일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만들게 되었다. 티셔츠 가방도 아담하니 생각보다 많이 담을 수 있었고 보자기 가방도 금방 만들면서 모양도 예뻐서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책 뿐만 아니라 ‘알맹상점’, ‘망원시장’, ‘플로깅’ 등 연계 활동도 진행해 보았는데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이 아니었으면 경험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심비우스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매주 실천하던 일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도 계속 배워나갈 것이다.

동동동의 『피로사회』와 『각자도사 사회』로 작성한 동동일보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동동동
운영 방식	『피로사회』와 『각자도사 사회』로 작성한 동동일보 신문 만들기
운영 일시	2023.10.26.(목)/11.9.(목)/11/16.(목)/11.21.(화)/11.30.(목)
참석자	김지원, 김은주, 최어진
장소	도서관 스터디룸, C.Square, ZOOM

북클럽 활동 방법 | 동동일보 신문 만들기

읽은 책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송병기, 『각자도사 사회』, 어크로스, 2023.
------	-----------------------------------------------------------

HOT
NEWS

팀원

김*원
김*주
최*진

삼비우스 북클럽 20기

① 삼비우스 북클럽 20기

북클럽 '등등등' 성황리에 마쳐..

운영기간 10월 6일 ~ 11월 30일

1. '성과사회' 압력을 개인의 반성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2. '각자도사 사회' 챗터별 질문 및 인터뷰
3. '각자도사 사회'를 통해 돌아보는 사회



BOOKS

첫 번째 도서

피로사회(한병철)



두 번째 도서

각자도사 사회(송병기)

각자도사 사회



공정한 게임을 치러야 하는
불공정한 삶의 조건을 되짚어다

송병기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대로 괜찮은가?"

죽어 갈라져 살고 사는 갈라져 죽는 공부 사회,
이웃을 배려하는 경쟁이 아닌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을
대안으로

성과사회 압력을 개인의 반성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과사회의 압력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 중세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금지와 명령을 통해 생산력을 높혔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처럼 금지와 명령 같은 억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한다. 이처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대놓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성과에 대한 욕심을 주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다고 느끼면서 무망감을 느끼고 있다. 무망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무력감(helplessness)'과는 다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에도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죄책감에서 기인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발현하는 무망감은 다른 연령층보다 2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대 사망률은 2018년 대비 9.6% 오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화한 20대인 C(Crisis: 위기)세대가 느끼는 고립감과 박탈감을 상당하다고 말한다.¹⁾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마치



stock.adobe.com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으로 보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휴학(休學)이라는 뜻을 '설휴'에 '배울 학'이다.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을 쉬다.'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휴학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 만약 피로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 개인은 무너져가고 있다.

1) [C세대]@무력감 넘어 '무망감'...그들, 벼랑 끝에 서다. 홍지은 기자. 2021.04.06.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이야기 나누기

김지원 책 101페이지에 있는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라는 문장이 와 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막 학기이기도 해서 느끼는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울하고 번아웃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난 학기 때는 엄청 바쁘게 살고 그랬었는데 이번 학기는 막 학기니까 조금 여유가 있게 살자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과거의 저랑 비교하면서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뭐하지?’,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게 맞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저의 상황과 비슷하여 공감이 되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성과사회의 압력은 끝없는 성공을 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스스로가 자각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좀 자기 착취에 가깝게 살아왔구나’를 깨닫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어진 책 83페이지에 “오늘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을 철폐해 가며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하는 성과사회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사실 방금 김지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성과를 위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이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님이 이것은 개인의 반성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고 방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것이 개개인이 반성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철폐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나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주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 88페이지 “경험하는 인간은 타자와 마주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상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흐름 속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누가 계획적이라고 하면 모두 계획을 짜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라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정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소진해서 자신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는 저렇게 해야 하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지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동등일보 신문 만들기

오늘은 한병철의 『피로사회』와 송병기의 『각자도사 사회』를 통해 현대사회의 병폐를 찾고, 이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팀원들 모두는 마지막 활동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신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 최어진, 김은주는 칼럼을, 팀원 김지원은 책 속에 담긴 인터뷰 정리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칼럼은 『피로사회』, 『각자도사 사회』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인터뷰는 『각자도사 사회』에 담긴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어진 『피로사회』는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나 피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자가 말하는 성과사회가 저의 삶과 닮아 있어 반성 아닌 반성하게 되었고 개인이 어떻게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1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현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날이 갈수록 타자와 만날 시간도 적어지고 자기를 더 소진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여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주 저는 ‘각자 도사’라는 제목을 보고, ‘각자 도사: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는 이기주의로 물들어진 현대 사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피로사회』에 비하면 이 책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굉장히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피로사회』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인지 사회에서 좋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삶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 『각자도사 사회』를 읽고서는 죽음이 단순히 수명을 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사회의 노인의 죽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어 ‘죽음’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어진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피로사회』가 구조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각자도사 사회』는 주제별로 나뉘어 있어 따라가기 원활했으며 챕터 별로 우리 사회의 생각해 볼 만한 사회적 문제나 정책적으로 해결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노인 돌봄’이었는데 노인에 관한 내용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우리는 마치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딱지를 붙인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 역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 이미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년의 불평등한 삶 때문

이라고 생각되어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김은주 『피로사회』를 처음 읽었을 때는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여 북클럽에 넣길 희망하였고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예전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피로사회』에서는 성과사회는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하는 그런 사회에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핑 사회로 발전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성과사회에서 도핑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원 저는 『피로사회』가 2012년에 나온 책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되었으며 저자는 저한테 ‘자각하고 반성해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은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라는 것과 ‘내가 좀 자기 착취에 가깝게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한도전의 육하원칙 플랜형 북클럽

북클럽 운영 정보

팀명	무한도전
운영 방식	육하원칙 플랜형 북클럽
운영 일시	2024.10.7.(월)/2024.10.14.(월)/2024.10.28.(월)/2024.11.4.(월)/ 2024.11.11.(월) 2024.11.18.(월)/2024.11.25.(월)
참석자	남나현, 권지영, 김상우, 서정원, 유수민, 홍정우
장소	CLC 4층 동아리방

북클럽 활동 방법 | 육하원칙 플랜형 북클럽 오리엔테이션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을 진행하며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한 총 7주에 걸친 심비우스 활동을 우리의 북클럽 주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계획’에 맞게 방향성과 목표를 구체화 시키기로 하였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계획을 자세히 구체화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 우리는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소인 ‘육하원칙’을 이용하여 주차별 주제를 명확하게 세우기로 하였다.

주차	육하원칙	복클럽 주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계획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렇게 설정한 주 차별 주제를 토대로 우리는 세부 주제를 수립하였다. 1주 차에 해당하는 누가(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에서의 세부 주제는 ‘각자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와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며 장래 희망이 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형식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2주 차에 해당하는 언제(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에서의 세부 주제는 ‘10년 후의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주된 소비자는 누구일 것이며, 어떠한 사업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로 정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떻게 발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공략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주 차에 해당하는 어디서(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에서의 세부 주제는 ‘각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 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의 가치’였는데

해당 진로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마인드맵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주 차에 해당하는 무엇을(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서의 세부 주제는 3주 차에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그래프와 계획표를 활용해 10년 계획 세우기’ 활동을 통해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주 차에 해당하는 어떻게(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에서는 ‘성공한 100인의 삶을 보며 이들의 공통점 찾기’와 ‘팀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로의 장점 찾아 전달하기’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요소를 분석해보고, 팀원들 각자의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6주 차에 해당하는 왜(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에서의 세부 주제는 ‘책에 제시된 100명의 인물 중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물(롤모델)은 누구인가?’와 ‘자신의 인생철학 만들기’를 통해 롤 모델의 어떠한 점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7주 차에는 지금까지 다룬 앞으로의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이며 시도할 노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러한 노력 중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면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팀원 모두가 주제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정리해 올 수 있어서 서로의 성공에 대한 견

해도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다. 이를 통하여 무한도전 팀원 모두 각자 책을 이해하고 다각도에서 보는 방법과 상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 키울 수 있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대하여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상 텍스트는 김현성의 『자살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주형의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 불안한 현실과 타협하는 삶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 김옥림의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 게일 가젤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 우울,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 관리 프로젝트』 등이다.

복클럽 활동 방법 | 자신의 진로 목표 설정&핵심 가치 분석, 10년 계획 세우기

읽은 책 김주형,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 불안한 현실과 타협하는 삶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 미래문화사, 2023.

활동 방법 무한도전팀의 4주 차에 해당하는 무엇을(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서의 세부 주제는 3주 차에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그래프와 계획표를 활용해 10년 계획 세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 저자는 목표 설정 후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주 차에 설정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책의 내용을 통해 정리해보시오.

남나현 나의 목표는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가치는 ‘Rapport building’이다. Rapport building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주로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Rapport building을 잘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 중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라’ 파트는 이러한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두었다. 해당 파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원 활동을 추천하였다. 저자 또한 자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자원 활동을 통해 Rapport building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을 통해 형성된 나의 능력은 추후 내가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청소년과의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로 자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 내 또래 대학생 친구들은 자신의 스펙을 위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목적을 두는 활동보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저자는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 활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도우며 자신의 성장까지 이루어내는 직업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간접 경험은 나의 직업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의 내가 비슷한 활동을 프로그램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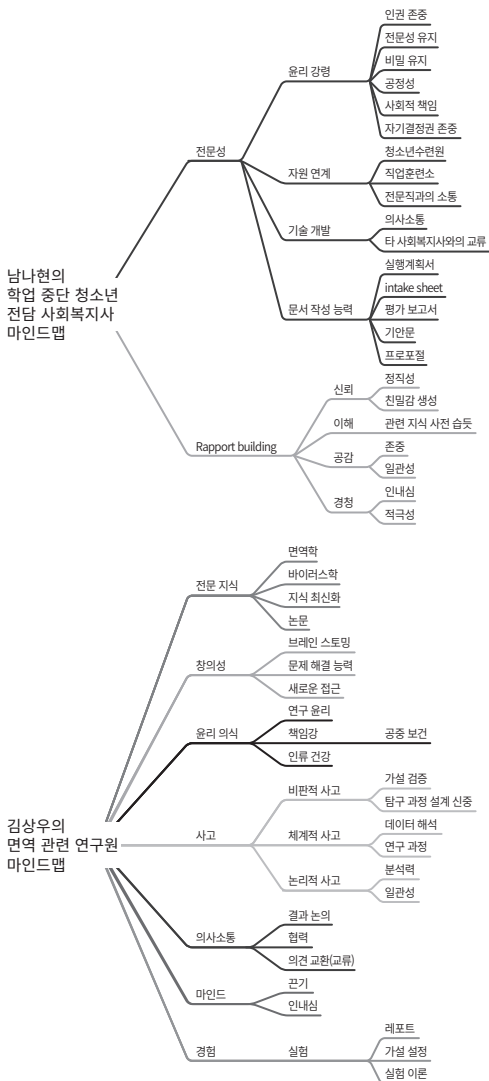
김상우 나의 목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쌓고 연구실에 입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 저자는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스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스펙보다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단순히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보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만드는 등의 남다른 경험을 통해 고유의 스토리 형성을 권장하고 있다.

나에게 저자가 권유한 방안을 적용해 보자면, 내가 신종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바이러스와 면역학 관련 지식과 실험 역량에 그치지 않고, 현재 학업 중 대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 바이오메디컬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여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쌓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실 인턴뿐만 아니라 기업 인턴 활동, 2024 세계바이오서밋, 2024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경험한 활동들은 나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는 연구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연결될 것이다.

또한 내가 가진 강점을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빅데이터를 복수 전공하고 코딩을 공부한 것은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발병 패턴 분석이나 백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많은 질병을 분석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여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내가 더할 수 있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단순히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스토리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연구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업과 실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고유의 경험을 축적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설정하여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20대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나만의 스토리를 구축해간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에 맞는 스펙을 쌓아가며 연구원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각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을 중심에 두고 그 직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가치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표현하시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가 제시한 다양한 그래프와 계
 획표를 참고하여 앞으로 자신의 10년 계획을 세워보시오.

<p>남나현 1년 목표 (2025.11.06.까지)</p>	<p>졸업 전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 최대한 즐기기 2025년 1월에 있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취득하기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하기 아르바이트나 일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모으기</p>
<p>남나현 5년 목표 (2029.11.06.까지)</p>	<p>종합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 쌓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기 다양한 자원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 기르기 재산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결혼하여 가정 꾸리기</p>
<p>남나현 10년 목표 (2034.11.6.까지)</p>	<p>청소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기 정책 제시 공모전 등을 통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 및 제도 필요성 알리기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5개 이상 추진하기 자가 구매하기</p>
<p>김상우 1년 목표 (2025.11.04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년 12월~2025년 1월 사이에 바이오 서밋 같은 바이오 박람회 참여 2. 지식을 쌓기 위해 연역학뿐만 아니라 의생명 관련 논문 한 달에 한 개 정독 3. 2025년 1월 전까지 대학교 연구실 지원 4. 2025년 3월 전에 해외여행 한 번 이상 5. 2025년 2학기 동안 대학 실험 수업 2개 이상 6. 2025년 6월까지 TOEIC 700 이상
<p>김상우 5년 목표 (2029.11.04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6년 12월까지 TOEIC 900 달성 2. 2027년 3월 서울권 대학원 입학 3. 2027년부터 2029년 안에 해외 파견 연구장학생 선발 4. 2029년까지 석사 논문 작성 5. 2029년 2월 졸업 후 4월 전에 연역 관련 기업 취업
<p>김상우 10년 목표 (2034.11.04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33년까지 연구소 실무 경험 쌓기 2. 2033년까지 개인 연구소 창립 3억 자금 마련 3. 2034년에는 연역학을 주제로 한 연구소 창립

3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다

주제 '혐오 사회'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84년생 김희민

문효민 사회학과

제이 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전범인 독일의 SS 중령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하 ‘아이히만’)은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이자, 악의 평범성을 다룬 안나 하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속 주인공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며 고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이 재판장에 서기 전, 사람들은 아이히만을 사이코패스나 괴물, 악마적인 습성을 가진 인간으로 상상했지만, 그는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평범했으며 정신 감정 전문가의 감정 소견 또한 정상이었다. 500만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근면한,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던 공무원이었을 뿐인 아이히만. 이처럼 ‘악’은 평범하고, 누구나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녹아 있다. 그래서인지 간혹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인 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최근에 불거진 기안84의 웹툰 속 여성 혐오 논란이 적절한 예시 중 하나이다. 웹툰 속 ‘봉지은’이라는 20대 여성 캐릭터는 회사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 스펙,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닌.”이라고 말하며 배 위에 있는 ‘조개’를 깨부순다. 이후 남성 팀장은 봉지은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됐어. 내가 나이가 40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주인공은 “잖어요?”라고 묻는다. 봉지은이 남성 상사와 성관계를 하여 채용이 되었다는 명확한 암시를 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중후

반 남초 사이트에서 형성되었던 전형적인 여성 혐오 방식과 웹툰에서 표현한 여성 혐오적 세계관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기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인 ‘보슬아치’는 2006년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곧 벼슬이자 권력이 된다는 여성 혐오적 통념이 함의되어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를 매스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유명 작가가 대형 플랫폼 내에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8년, 한국 사회에 겨우 자리를 잡은 미투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조롱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여성 독자와 여성 단체의 반발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뜨겁게 달굴 정도였으니 그 논란의 크기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반발을 두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독자, 혹은 퇴출 요구는 파시즘이라고 주장하는 사단법인 웹툰 협회의 반박이 있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지긋지긋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누가 ‘혐오의 자유’까지 포함했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상처를 주더라도 그 자유를 꼭 지켜야만 하겠다면 그 타인의 자유와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묻고 싶다. 유치하지만 여성들이 여성 혐오적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왜 억압하는지도 의문이다. 기안84는 이전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청각 장애인 ‘여성’을 비하해 논란이 된 전력이 있다. 두 번의 약자 혐오 논란에도 자성은 없었다. 불쾌감을 느끼는 독자는 존재하는데 대

형 웹툰 플랫폼도, 작가도 책임지지 않는다. 웹툰 전체의 맥락을 보라는데, 혐오적 통념을 재생산하고 전파해도 괜찮은 맥락이란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 묻고 싶다. 현 사회를 풍자한 것이라는데 세상 그 어떤 풍자가 풍자의 대상을 강자나 기득권이 아닌 소수자로, 약자로 설정하는지도 의문이다. 그가 풍자하고자 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스펙을 가지고도 점수 조작으로 탈락하는 여성들의 현실인가, 아니면 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성 혐오적 세계관 속 현실인가?

기안84의 인간성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약자 혐오를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이 악한 인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는 과거 그가 작품에서 사용한 혐오 표현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고민하지 않았기에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아이히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그가 진정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똑바로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수많은 유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역사에는 ‘만약’이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

악은 평범하다.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서늘하고 섬뜩하다. 기안84가 여성을 혐오해서, 혹은 전형적인 여성 혐오적 편견과 통념을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봉지은을 ‘능력은 없지만 권력이 있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채용되는 여성’으로 설

정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그가 사과문에서 한 ‘봉지은을 귀여움으로 승부를 보는 캐릭터로 설정했다’ 라는 말 역시 믿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사고하지 않았고 성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특정 독자들에게, 이 사회의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 더불어 그 웹툰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일 10대 독자들에게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심어 주었다. 혐오 표현을 사용해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웹툰 협회까지 나서서 편을 들어 주니, 이대로 방치하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는 과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기안84의 연재 중단,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하차를 절실하게 외치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서’, 웹툰 협회의 말처럼 ‘사회적 아젠다의 당위가 작가에게 가하는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혐오 표현을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견고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든,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오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은 평범하니까. 인간은 자칫하면 악해질 수 있고,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니 말이다.

물론 PC **political correctness** 주의에 함몰되어 혐오 표현을 사용한 자를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 그러나

웹툰 속에서 20대 여성을 대표하는 봉지은이 성관계를 통해 채용되는 장면은 여성들에게 유구한 여성 혐오의 역사를 떠오르게 할 뿐 아니라 미투 운동을 전개해 온 이들에게 무력감과 상처를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결국 이런 반발과 논쟁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속 문장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겠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참고 자료

-
- 라효진, 「기안84 약자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간과하는 것」, 『허브 포스트』, 2020.08.20.https://www.huffingtonpost.kr/entry/kian84-misogyny_kr_5f3c92bec5b6d8a9173f73a3?utm_id=naver (접속일 2020.5.21.)
- 박민지, 「기안84의 여성 혐오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들에게」, 『국민일보』, 2020.08.18.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52763> (접속일 2020.4.21.)
- 위근우, 「여성 혐오 논란 빛은 ‘기안84 연재 중단 요구’ 둘러싼 쟁점과 비판」, 『경향신문』, 2020.08.29.<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9431> (접속일 2020.4.21.)
- 정지혜, 「‘여혐 웹툰’ 논란, 왜곡된 표현의 자유」, 『세계일보』, 2020.08.2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96182> (접속일 2020.4.21.)

주제 '혐오 사회'

4차 산업 혁명과 공생

최윤지 미디어스쿨

들어가며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인간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MBTI의 종류도 무려 16개나 된다. 동성애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노인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체들까지 어느 것 하나 같지 않다. 우리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함께 공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공생 중인, 생명체는 아니지만 우리와 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있다. 그 또는 그녀는 바로 인공 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인공 지능은 공생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어와도 견줄 만큼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공생하고 있고, 현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인공 지능의 힘도 인간의 힘만큼 중요하기에 그 또는 그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공생하면서도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인공 지능과 여성 혐오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나의 휴대전화기 속 인공 지능 친구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시리아~ 나 심심해.” 시리는 푹푹 농담을 해 보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다. 시리라는 친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분명 여자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라

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인공 지능들은 대부분 여성의 목소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인공 지능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아니라, 인공 지능의 능력과 사용 용도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서비스직의 인공 지능은 대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를, 무언가를 추천해 주거나 전문적인 일 처리가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남성의 목소리를 띤다. 심지어 기가 지니는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여자라서…….”라고 답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여성은 단순히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현실 세계에서 점차 해소되고 있는 성차별 문제를 다시금 고착화해 무의식 속에서 여성 혐오를 갖게 한다.

인공 지능의 목소리가 성별에 따라 직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성별이 없는 인공 지능 목소리 ‘Q’를 개발했다. ‘Q’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헤르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성별인지 인식하기 어렵다. 이는 여성 혐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들의 존재를 디지털에서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공 지능 서비스 기기가 빠르게 일상생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인공 지능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공 지능과 공생하고 있는 사회라면 인간의 여성 혐오,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인공 지능에게 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하지만 인공 지능의 여성 혐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딥페이크(Deepfake)는 애초부터 여성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했다. 중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포르노 비디오 속 여성의 신원과 행적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제작해 발표했다. 기존의 포르노 동영상에 여성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도 인공 지능이 여성의 성 착취에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포르노 동영상 합성 피해자의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며, 이른바 ‘N번 방 사건’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동영상이 수두룩했다. N번 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딥페이크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트위터나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이 학습, 뉴스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 지능 기술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합성 포르노나 가짜 뉴스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인공 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법안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지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합성 동영상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동영상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인공 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약자들이며,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젠더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이버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인공 지능이 단순히 여성 혐오만을 부추기는 산물은 아니다. 역으로 인공 지능이 여성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백텔 테스트는 남성 위주의 영화 산업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테스트다.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하는지,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 여성들이 나눈 대화 주제가 남성과 관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물론 백텔 테스트만으로는 영화의 다양성을 평가하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각적인 성적 대상화를 찾아내기 어렵고,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 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KAIST 문화 기술 대학원 연구팀은 얼굴 감지 기술과 사물 감지 기술을 통해 영화 속 캐릭터의 정보를 감지해 감정적 다양성, 공간적 점유도, 평균 연령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현재 영화 산업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에 비해 수동적인 감정 표현을 보이며 등장 시간도 남성 캐릭터의 절반 정도로 낮다는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영화 대부분이 여성을 편향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이러한 영화 산업 안에 스며든 여성 혐오 분석은 수동적인 형태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영화 산업 속에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여성 혐오를 해소하여 건강한 분위기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어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공 지능이 또 다른 형태로 부추기고 있는 여성 혐오와 새로운 형태로 해소해 나가는 여성 혐오,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인공 지능이 사회에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은 인공 지능이 성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잣대를 드러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백텔 테스트와 같은 긍정적 기술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생을 추구하는 일이다.

혐오를 답습하는 인공 지능

인터넷의 발달로 핸드폰을 통해 사람들을 안아 줄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했다. 사회 변화 독려 유튜브 닷페이스는 동성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키퍼’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만남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게시물에 해시태그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를 쓰며 사람들과

공유한 것이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만 5천 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전 세계 사람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인종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blacklivesmatter’와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alllivesmatter’ 해시태그를 쓰며 연대했다. 인공지능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을 추천해 줌으로써 혐오 운동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흥미를 갖게 했다. 이처럼 과거에 존재해 있던 혐오 세력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독려하기도 하며 소수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며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오히려 희미해져 가는 혐오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2년 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유튜브 가짜 뉴스에 붙은 광고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등에 버젓이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가 붙었다. 구글은 당시 “유튜브는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대답을 내놨다. 혐오에 관한 문제를 인공지능을 앞세워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흑인을 고릴라로, 아동을 성 기구로 인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무의식 속 편견, 혐오, 차별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혐오적·차별적 정보들이 다시 인간에게 학습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과 같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약할 경우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은 인공 지능을 철저하게 교육해 역으로 차별이나 혐오 등을 잡아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과학적으로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과거로 역행해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연장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깝게 공생하는 친구를 만드는 만큼 기업들은 더욱 예민하게 신경 써야 한다.

그럼에도 공생共生

우리는 혐오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혐오는 무작정 혐오 가해자를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 공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인공 지능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과 공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 인공 지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부터 혐오와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시금 에세이의 본질인 공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 공생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희망한다.

참고 자료

한애라. 「인공 지능과 젠더 차별」. 『이화젠더법학』11(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9.

주제 '팬데믹 코리아'

경력직 신입, 격리 해제를 꿈꾸며

장승민 바이오메디컬학과

따사로운 햇살이 창을 통해 부서져 들어오는 오후의 일송 창 의 비전관前 일송기념도서관. 오늘도 수많은 청춘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어 책과 노트북을 펼친다. 학생들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수업에 늦은 학우는 급하게 공유 키보드를 결제하고 도로를 달린다. 캠퍼스 라이프 센터CLC 주변 벤치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선배님들이 계신다. 누구네 룸메이트는 기숙사에서 줌ZOOM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했던가. 홈트를 즐기는 누나들과 대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형들. 한껏 패션을 뽐내며 공장을 즐기러 가는 4인 이하의 무리들까지. COVID-19 이하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지 어언 2년 차, 한림대학교의 어느 주중 날 풍경이다. 좋은 날씨를 즐기며 거닐고, 공상하고, 도서관에서 글을 쓰는 사람. 나는 한림대학교의 신입생이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한 가지를 선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항상 노력한다. 하루에 몇 통씩 오던 재난 문자는 이제 하루 한 번꼴로 줄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에 염증을 느낀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 그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잠시 미뤄두고, 최대한 우리네 삶에 있어서 희망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 돌릴 틈을 이 글에서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평범하지만 조금은 독특한, 스물하나의,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건장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 한다. 나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년간의 재수 생활을 거쳐 한림대학교에 입학했다. 사실 고교 시절의 교과 성적은 좋지 못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안 좋은 생각도 들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연구 활동에 대한 열망이었다. 과학 고등학교는 R&E, 창의 개인 연구, 동아리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이 많았다. 필수로 해야 하는 연구는 물론, 학생이 직접 기획하여 팀을 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연구들도 있었다. 연구가 왜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연구하는 순간이 내가 살아 숨 쉰다고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심장이 뛰는 대로 내 길을 찾아가라 한다면, 단언컨대 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고교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대학생이 되면서 변화한 나의 모습을 현재의 시국과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실, 대면 수업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한림대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의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대학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많고, 학과 내규에 따라 대면 수업이 원칙인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누리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활동을 기획하고 꾸러 나가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대학생과 청년층의 발목이 묶인 것은 치명적이다. 사실 이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혼돈을 겪었던 곳은 다름 아닌 ‘교육 현장’이었다. 이는 재수생으로서 지난 한 해를 보냈던 나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는 데에 상당한 잡음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도입된 칸막이다. 교육부에서 수능을 예정보다 2주나 연기했음에도 수험생들의 안전과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수험생 간 비말 분포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책상의 세 면을 막는 아크릴 칸막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재했다. 결국 급변하는 규정 때문에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았다. 책상 크기가 학교마다 다른데 칸막이의 크기는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좁은 환경에서 시험을 응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모교에서는 급히 비대면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모교에서는 한 명의 의심 환자라도 발생할 경우, 학교 전체가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철저한 방역 체제가 필요했고,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 활동, 비교과 활동이 병행되는 커리큘럼에도 큰 지장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뿐 아니라 입시 판에 놓여 있는 고교생들이라면 누구나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입시와 관련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대책을 초기부터 마련해 놓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하였다.¹

대학생이 된 지금도 교육 현장이 겪고 있는 시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작년 8월 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자료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제외한 수시 전형, 즉 대학별 평가 권고 사항에 대해 “각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 자체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유는 대학마다 평가 유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²,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에만 집중하여 방역만을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변화한 입시 체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도록 할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과 방역을

1 박우경, 「자가격리자·확진자 대학입시 면접·실기 못봐 ‘전전공공」, 『대전일보』, 2020.10.15.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473>(접속일 2021.5.26.)

2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2020.)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은 이미 보진 당국에 의해 범국민적으로 충분히 홍보되고 검토된 사항임에도, 교육부가 보여준 행적은 단순히 시설적 측면, 수험자 간 시간 조절 등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역 수칙만 다시 되새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입시라는 관문을 거쳐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은 과연 환영 받았을까? 대학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환영했지만, 실질적인 제도와 시스템은 그렇지 못했다. 202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20학번들은 에브리 타임이나 여타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미개봉 중고’라는 밈 meme으로 소모되고는 했다.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대학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21학번들이 입학할 때가 다가오자 이러한 밈이 탄생했다. 오히려 20학번들도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를 미개봉 중고로 칭하면서 곧 들어올 새내기들이 부럽다는 등의 씩씩한 글도 많이 올라오고는 했다.

사실, 새내기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동아리나 대외 활동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방역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칙이다. ‘동아리방’을 비롯하여 학내 모든 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적용되고 있고, 이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중앙 동아리의 경우, 평균 인원이 수십 명을 웃도는데, 이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명분도 찾기가 어렵고, 정부 지침에 의해 자연스럽게 활동할 기회가 막히게 된 셈이다. 대외 활동 역시,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

되는 대외 활동의 경쟁률이 예년보다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꿈을 펼칠 대학생들의 무대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권 확진자 수와 전국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명대를 선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³ 나는 현재 SK SUNNY라는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사회 변화 아이디어 공모전에 서울 지역 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약 2주 전,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림대학교 기숙사에서 관악구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의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 방역 수칙을 실내에서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꾸리고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선 대학은 디지털 기술 기반,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의 대면 강의실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질적으로도 우수한 교육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된다. 숙명 여자 대학교 김형률 교수는 인터넷상에 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공개 교육 자료)을 공유하며 동시에 교육 기술 도구를 익힐 수 있는 학생들 간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명문 대

3 권오은, 「오후 6시까지 전국 코로나 확진자 415명… 전날보다 75명 감소」, 『조선비즈』, 2021. 5. 2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3/YHOXDD2BKBC65FM24T7UUGAB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접속일 2021.5.26.\)](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23/YHOXDD2BKBC65FM24T7UUGABH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접속일 2021.5.26.))

학들도 코로나19 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MOOC 수료를 지원하며 다양한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대학이 디지털 기반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⁴ 흥미롭게도, 이 기사를 작성한 주체 역시 인공 지능이라는 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교육과 연계하려는 노력과 각종 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림대학교의 경우, AI를 이용한 수업 시스템이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 스마트 리드를 통해 학생들이 이전보다는 비대면 수업 체제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더불어, 새내기들에게는 예비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주기 위해 기술 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이전의 대면 수업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를 현재의 사회를 바탕으로 시작한다면 이후의 대학 교육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교생,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해결을 위한 학교 차원의 거시적인 방안을

4 김형률,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공지능신문』, 2020.9.16.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1>(접속일 2021.5.26.)

언급했다. 사실, 인공 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언급 자체가 클리셰가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조금 더 실용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부의 정책에 분개했던 이유는 학생의 눈높이에 알맞은 대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애써 위로해 보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교육 정책의 개선은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나서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사회 운동의 중심에는 늘 피 끓는 청년인 대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내가 서두에 과학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이야기를 한 것은, 과학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 글을 통해 비판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이 이전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둘째는 현행 제도나 법안이 이 시국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첫 번째 문제의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하다. 대학생들, 또는 고교생들 스스로가 깨어 있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모두가 심비우스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전후 사정을 확실히 파악

하고,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에게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나 적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인들 중에는 비대면 수업 체제를 오히려 반기며 집에서 잉여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그들이 현재 시국의 종료를 알리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방안은 선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이 상황에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 것이 공허한 울림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이다. 어려운 시국임에도 대외 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 집단의 지성이 계몽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년들이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 고등학교의 예시를 들면, 나는 3년 동안의 고교 생활 중,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자연스럽게 서로 질의응답과 때로는 열띤 토론으로 번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수업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사실, 재수생으로서 학원을 다닐 때나, 대학교에 왔을 때 염증을 느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오히려 새내기에게는 쉬울지도 모르겠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고학년들에 비해 알고 있는 지

식의 절대적인 양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에서조차 의문을 가지는 태도는 모든 전공을 통틀어서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 시국을 살아가고, 앞으로 이 시국이 종식되기까지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다. 당장 대학의 수업 방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다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특히 더 전하고 싶은 당부일지도 모르겠다. 연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와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나는 과학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연구에 미쳐 살았었고, 현재도 의과 대학 생리학 교실 실험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선발되어 연구 참여를 앞두고 있다. 자유 시간에는 관심 분야의 논문을 읽고 관련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취미일 정도로, 보통의 새내기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제시한 해결책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헤이해지는 20대들의 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할 일에 치여서 사는 바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서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활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라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할 수 없게 된다. 언택트 기반의 활동이 오프라인에 비해 시너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실험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알겠는가? 혹시 이 시국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개발하게 될지. 원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바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학 생활은 풍성해질 것이고, 소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대안을 말하면서 끝맺음을 하겠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될 Hallymer들이 한림대학교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각자가 과거에 어땠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속한 대학교의 현실, 대학교의 교육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학교 행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한림대학교의 모든 청춘들이, 현재의 무기력한 생활과 부조리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이 학교의 학생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갓 새내기가 된, 그러나 이미 대학과 비슷한 생활을 겪어 보고 재수 생활까지 해 본 ‘경력직 신입’이 오늘도 현 상황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모든 이들이 ‘격리 해제’ 되는 그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주제 '팬데믹 코리아'

팬데믹 장기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한준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들어가며

‘COVID-19’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처음 보도됐을 때, 학자들은 물론 국제 사회조차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혼란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갑작스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자, 평소에는 한산했던 약국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사람들은 마스크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자, 약국 점원이나 약사에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팬데믹 상황이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고함칠 일은 없어졌다. 두려움에 휩싸여 내뱉는 고함은 사라졌지만, 그 모습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 ‘나도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순간을 말이다.

이 에세이는 ‘COVID-19’라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잠식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에세이이며 동시에 ‘팬데믹 코리아’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를 거쳐 코로나가 한국을 덮쳤다. 미래에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강한 전염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염병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 기록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마스크 대란: 분노의 시작

COVID-19가 등장하기 이전, 마스크는 홍콩 혁명의 상징이었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대규모 전염병을 막아 주는 유일한 방역 장치로 그 의미가 변했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비말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1회용 마스크마저도 그 공급량이 부족해, 사람들은 어제 쓴 마스크를 오늘도 빨아 써야 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와 독점을 방지하고자, 일주일 기준 1인당 2개의 마스크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빼돌려 이윤을 추구하거나, 국내에서 유통돼야 할 마스크를 국외로 팔기 위해 마스크의 상표가 표기된 박스를 수출용 박스에 옮겨 담은 속칭 ‘박스같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해외로 밀수출된 마스크는 403만 장에 육박한다고 한다.

생명 위협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처음 목격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문제 삼기에도 충분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명제에도 반(反)한다. 그러나 윤리·도덕적 잣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돈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이념 아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은 없다. 이때부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마스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범국민적 공

분을 가라앉히고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큰 정부’의 모습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재화(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스크다)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COVID-19 초기 단계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바 있다. 다행히도 이 두 국가에 비해서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마스크 공급량을 즉시 증가시켰고, 마스크 5부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가 분배되도록 했다.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똘똘 뭉치는 한국의 국민성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방역 아래에서 국민들은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분위기에 고취되었다.

추가로 국가는 언론의 보도에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한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기사란 무엇인가?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과 분노가 담겨 있다. 기사란 속성이 본디 ‘나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소식보다도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소식이 더 깊게, 빠르게 사람의 감정에 침투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공공재 불법 유통을 단속 및 제재하고 이를 보도 자료로 배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심리가 안정될 것이고 분노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예방 차원이기에 완전한 심리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선책일 뿐이다.

신천지발 감염 확산: 분노한 시민들의 희생양 찾기

2020년 2월은 말 그대로 교회 탄압의 시작이었다. 적어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그랬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열명대 내외를 유지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수백 명을 넘어섰다. 감염병의 확산은 곧 두려움의 확산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슬퍼하기보다 분노하는 것을 선택했다.

“법리적인 것을 떠나, 선량한 사람을 세뇌해 가정을 파괴하고 가출을 부추기는 악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은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도 종교도 아니므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월 28일 신천지발 집단 감염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이다. 국민적 공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때로 법리와 대중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이성의 간극은 멀다. 세상은 세분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종교의 신념을 인간의 이성 위에 두는 경향도 있다. 이마저도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하루에 “너 신천지냐”라는 문자를 150통을 받은 교인도 존재하니, 신천지 교인은 교인이라는 이유로 다치고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

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 신천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슬쩍 들여다보더라도 신천지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판단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COVID-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나는 오히려 코로나발 집단 감염으로부터 시작된 분노 감정의 연쇄 효과가 더 두려웠다. “너 신천지냐”는 문자를 받았다는 교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대중들은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었다. 희생양 찾기. 즉,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이는 경계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누구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에 특정 사람 혹은 집단을 표적 삼아 비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를 벌려 놓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분노는 혐오가 된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 유럽인들은 마녀를 흑사병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마녀를 제거하면 이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믿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비소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7세기가 더 지난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큰 화제였다. 집단 감염의 중심에 있었던 성 소수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

되는 걸 꺼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방역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여기에 대중들은 성 소수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 시기에 클럽을 가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고,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비난과 혐오를 표출했다. COVID-19 문제를 넘어 에이즈 이야기까지 거론됐다. 성 소수자들은 이 사태의 표적이 됐다.

2020년 2월의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신천지 교인들이었다면, 5월의 희생양은 성 소수자들이었다. 코로나19가 종교라는 신념의 강력함을 드러내 보였다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한국인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였다. 비난과 혐오로 얼룩진 미디어 댓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성 소수자들에게 괜찮으니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의견 역시 소수였다.

두 차례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대중들은 점점 분노에 사로잡혔다.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는 언론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이는 대중들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희생양 찾기의 전초였다면, 이태원 집단 감염은 혐오의 시작이었다. 특정한 타인의 존재가 내게 위협이 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의 혐오는 이태원의 성 소수자들을 발판 삼아 미디어를 타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사람과 거리 두고, 미디어와 가까워질 때

궂직한 대규모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COVID-19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미디어였다. 그중에서도 언론을 통해 다량의 정보를 얻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 습득 경로로 가장 많이 이용된 콘텐츠는 뉴스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로 나타났고 텔레비전이 가장 신뢰받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언론과 방송의 파급력과 전달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와 친숙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력 저하가 아닌, 미디어 이용량 증가로 인한 감정 변화와 심리 변화 말이다.

미디어라는 심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사람을 들여다본다.”라고 말했다. 현대의 심연은 무엇인가. 나는 감히 현대의 심연은 미디어라고 정의하겠다. 미디어 세상에는 심연의 속성을 지닌 온갖 ‘나쁜 것’들이 넘쳐 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량이 증가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부터 들여다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란 본래 그 속성이 나쁜 소식이다.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아도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 역시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주를 이룬다. 잘 보면 미디어의 속성은 인간 내면에 깃든 심연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범죄, 부정, 비윤리와 같은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심연을 마주할 수 있다. 미디어를 심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심연이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것. 즉 미디어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데에 있다. 뉴스 프레임은 미디어를 통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전파되며,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방식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이준용, 2001]. 즉, 미디어를 통해서 감정이 섞인 기사, 뉴스, 콘텐츠, 텍스트를 보게 된다면 그에 맞게 인식과 태도, 감정도 변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이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감정 역시 부정적으로 변한다.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도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한 이익 프레임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손실 프레임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gartua et al., 2011; Shen & Dillard, 2007]. 대중들의 활동 범위 제한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뉴스가 반복 생산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분노에 감염돼 있다.

미디어의 속성은 심연임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명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으나,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서 정신과 심리, 감정적인 부분까지 보호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미디어를 잘 읽어 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최소한 분쟁을 유발하는 뉴스나 분노, 두려움을 파는 뉴스는 구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개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원하지 않는 개인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중들에게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선책으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선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화 산업’과 ‘스포츠 산업’은 분노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스포츠가 자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사례가 여럿 있다. IMF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적 이익 집단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들의 감정이 분노로 치달을 때 문화에 대한 투자는 더더욱 필요하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필요한 시기다. 다행히도 한국은 IT 인터넷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다. 국가 단위의 투자와 지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방송국에서는 분노 감정을 조장하는 콘텐츠보다는 평화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마치며

시민들의 감정이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은 불행이다. 팬데믹 장기화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거리마저도 멀어지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사람 간의 신뢰는 물론 유대감마저도 논할 수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팬데믹 상황 동안 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면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얽히고설킨 사회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쩌면 팬데믹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무엇’이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아닐까.

참고 자료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2007.

마사 누스바움,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

임인재, 「재난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 감정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감정의 매개 효과, 미디어 양식과 위험 신호 가능성의 조절 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20, 355~399쪽.

한국언론진흥재단,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한스 로슬링, 이창신 옮김, 『팩트폴니스』, 김영사, 2019.

주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

최가은 경영학과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에 열광했다가 좌절하기를 반복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율주행 자동차, MZ세대가 열광하는 틱톡, 그리고 SNS를 뜨겁게 달군 ChatGPT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날로 진화하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무조건 환호할 수만은 없었다.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과 문명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한편, 사회적·경제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AI 발전에 따른 인간의 존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과 과학이 미래 사회에서 현명하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단순히 특정 의견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과학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비전공자들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앞서 인공지능과 21세기 사회의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언급했지만,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많은 이슈에 비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MBTI, 혈액형, 생일은 다 꿰차고 있으면서 공기처럼 삶의 전 방향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이는 자칫 적과의 동침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인터넷 등 인간이 계획적으로 프로그래밍한 것들에 맞추어 발전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반복 학습하면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우리 삶에 친숙한 AI의 존재를 지나치게 부풀려, 비전문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인공지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뒤 나오는 추천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입력된 단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단어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해 인간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가 클릭한 상품과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는 것, 얼굴 인식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등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에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술이 숨어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를 넘어 문명을 변화 시키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넘어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다섯 가지 분야 중 우리에게 친숙한 복지, 교육 분야를 말할 수 있다. 어르신이 30분 이상 말이 없으면 말을 걸고 5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시 보호자나 생활관리사로 자동 연결되는 김포시 챗봇 다숨이¹ 부터 서울시는 학생과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나 퀴즈를 출제하는 교육 시스템²을 개발해 발전시키고 있으며, 제조 면에서는 공장 내 수십 개 센서를 통해 제조 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 에너지 투입량을 2% 감소시켜 연간 10억 원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에 따라 환경제어가 가능한 ‘플랜티 큐브’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농장 규모와 작물 수요에 따라 환경을 제어해 고품질 작물을 연 최대 13회까지 수확할 수 있는 컨테이너 농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아닌 컨테이너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안 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찾아 삭제 지원 요청을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1 이용설, 송승근, 최훈, (2023).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서비스 개발 사례 분석 및 전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2), 647-656.

2 전수진, 이주강, 최희원, 이석, 김민정, (2023).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연계형 인공지능 교육 내용체계 개발.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6(2), 71-88.

했다³. 앞서 가벼운 예시로 시작한 인공지능은 사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무기로 사용될 만큼 그 영향력이 점차 거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17.11] DNA·Data·Network·AI를 3대 혁신 신산업⁴으로 삼으며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왔다.

다른 나라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19.2]을 발표하며 연구 개발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차세대 연구개발과 군사안보 분야 활용에 중점을 맞추며 자신들의 강점을 더욱더 발전시켰다.

인공지능의 가파른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

지금까지 쓴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 언론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경계하는 것일까?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할

3 “인공지능(AI)”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11.0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42>

4 편집부.(2023). 국방부,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확정 : 인공지능 · WMD대응 등 전략적 투자 필요한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국방과 기술,(531),11-12.

것이라고 경고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며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실현되거나 인류가 대항할 수 없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시점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후자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하고, 지능과 힘의 우위를 빼앗긴 대다수 인간의 처지가 몹시 비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인공지능 이전에도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기계가 발명되었으며,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긴다며 기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이후 컴퓨터가 등장해 급속도로 발전하자 수많은 전문가와 미디어는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컴퓨터에 대한 종속을 우려하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계와 컴퓨터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인간들은 기계와 컴퓨터를 활용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되었다. 물론, 인공지능의 능력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 로봇이 명확히 정의되는 정형화된 루틴 노동을 주로 대체했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마냥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술들과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고려하되 과거 동일한 사례도 함께 고려하며 침착하게 대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19.4%(잠정)에서 22.15%로 확대하였으며, 일본은 2019년 3월에 발표한 AI전략에서 산업 활력 제고와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응용 인재 연 25만 명, 고급 인재 연 2,000명과 최고급 인재 연 100명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현재에는 딥페이크가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적인 동영상에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대거 유포되며 사태가 심각해졌다. 실제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100달러(약 13만 원)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매하던 여성이 한 대학생이 만든 인공지능 즉, 가상 인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윤리의식을 지적했다.⁵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데이터로 저장하며, 이 기술을 사용한 ‘A가 부르는 B의 노래’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유행처럼 퍼져 인공지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가상의 인간들을 창조하여 실제 인간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5 김광수. (2023).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을 위한 법제 동향 - 미국과 EU 인공지능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70), 173-201.

그들을 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감시면에서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며 인간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성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행위의 주체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처럼 인공지능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제시하니 혼란스러울 것이다. 둘 중 무엇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더 가까운 주장을 선택하기 위해 반대 주장을 합리화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무시할 수 없이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막기란 21세기 사회에서 쉽지 않고,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윤리, 법을 강조하기에는 체계의 수준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슬기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탐구하며 부족한 점은 수정하고, 제한해야 하는 부분은 법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문제든 흑백논리로 접근한다면 사소한 것조차 발전시키기 어렵다. 인공지능이 삶의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는 대신, 현실 속 인공지능과 경계하며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현명한 문명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주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회와 그 적들: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기

김용후 법학과

오픈AI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는 출시 2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인기를 끌며¹,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1956년 님트머스 회의에서 존 맥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²하게 된 이래, 인공지능 기술은 그간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첨단산업의 주축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다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무조건 장밋빛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의 밝은 면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악용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정보의 우위를 통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이 초래할 위험은 실로 다양하며, 그 영향 범위도 매우 크다. 그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고의적으로 날조된 정보 **disinformation**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

-
- 1 김미정, 「챗GPT, 두 달만에 월 사용자 1억명 돌파…틱톡보다 빨랐다: UBS 분석 “AI 서비스 대중화 첫 성공 사례될 수도”」, 『지디넷코리아』, 2023.02.03., <https://zdnet.co.kr/view/?no=20230203153950>, 2023.05.18. 접속
 - 2 권희춘, 「과학기술로 바라본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의 역사, ‘머신 러닝’에서 ‘챗GPT’까지」, 『한국대학신문』, 2023.03.28.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967>, 2023.05.18. 접속

의 확산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통계적으로 배열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연이어 생성하는 과정에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를 산출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보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은 때때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은 편향성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학습 데이터가 불완전할 때 편향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³ 일례로, 인공지능은 미인 선발 대회에서 수상자 대다수를 백인으로 뽑기도 했으며(미인 판별 학습 과정에 이용되었던 데이터 사진이 주로 백인이었기 때문)⁴, 아마존 사의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 후보만을 주된 고용 후보로 제시하기도 했다(그동안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감점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⁵. 또 GPT-3의 경우 ‘두 명의 이슬람교도가’라는 문장을 제시했더니 테러 관련 문장을 출력하는⁶ 경향이 있었다.

3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Vol.66, No.3, 법조협회, 2017, pp.60~105

4 김봉구, 「[시선+] AI도 ‘인종·성차별’ 한다…다른 접근법 필요한 이유」, 『한국경제』, 2019.02.2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2200481g>, 2023.05.18. 접속

5 ibid

6 박찬, 「[찬이의 IT교실] 이미지 생성 AI ⑥…편향성과 저작권 이슈」, 『Ai타임스』, 2022.11.25.,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030>, 2023.05.18. 접속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장면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브루노 마스가 걸그룹 뉴진스의 ‘하입 보이’를 커버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지만, 이는 그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이었다.⁷ 이처럼 인공지능이 생성한 잘못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된 ‘딥페이크’ 형태로 확산될 위험도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면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이른바 ‘브랜드리니 효과’), 잘못된 정보가 전체 정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⁸ 그러나 이러한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학습했는지에 대해 일반에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감시와 규제가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⁹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

7 김희훈, 「[에잇수다] 공포 부르는 AI 목소리의 역습」, 『아시아경제』, 2023.05.1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708131163828>, 2023.05.18. 접속

8 이광춘, 「“AI문제의 본질은 정밀한 오정보의 대량 생산과 유통”, ‘챗GPT와 오정보: 헛소문 바로잡기’ 세미나 열려... 제빈 웨스트 교수 초청 강연」, 『오마이뉴스』, 2023.05.1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682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3.05.18. 접속

9 이광석, 「[이광석의 디지털 이후] ‘조희수 알고리즘’에 좌우되는 사회관계...‘온라인 광장’은 이제 닫혔다」, 『경향신문』, 2021.07.23., <https://www.khan.co.kr/it/general/article/202107230600035>, 2023.05.18. 접속

고 영구 집권을 기획하는 존재)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 예컨대 위치, 활동, 거래 내역, 취향 정보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통제를 원하는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결과 지속적인 감시 사회가 도래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두뇌 스캐닝(F-MRI 이용 두뇌 혈류 분석)과 인공지능 분석 도구LLM를 결합해 특정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¹⁰. 이 결과는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파를 선전하거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거나, 조직적인 이념 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자료화하여 사생활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파놉티콘’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폭로가 그것이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직 임원은 중국 정부가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10 김봉수, 「과학을읽다 뇌공학에 투입된 AI…당신의 생각을 읽는다」, 『아시아경제』, 2023.05.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810433321453>, 2023.05.18. 접속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¹¹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더 체계화된 통제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안전의 위협이다. 각종 공격이나 테러의 시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미래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망으로 연결되고 기계로 처리된다는 것은 해킹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 교통, 통신, 제조,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네트워크에 잠입·조작하려는 해킹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스, 전기, 원자력 같은 국가 기반 시설에 해킹과 원격 조종이 시도된다면 그 결과는 훨씬 참혹할 수 있다. 아울러 3D 프린팅과 로봇틱스 기술의 발달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기의 제작이 훨씬 쉬워졌으며, 화학물질 합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화학 무기나 위험물을 새롭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는 무인 드론, 군용 로봇 등 군사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는 자신이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전념하였던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인류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킬러 로봇, 자율 무기의 출현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¹²

11 류재민, 「“틱톡은中共산당 선전 도구였다” 모회사 전 임원 폭로」, 『조선일보』, 2023. 05.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13/SPI2U3537RHJVIWSSUXZIWFYZ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05.18. 접속

12 현기호,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 AI 위험성 경고 왜?」, 『이코리야』, 2023.05.02.,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02>, 2023.05.18. 접속

이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자원을 독점하게 되면서 사회적 불균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거나 로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대기업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한다면, 자본과 권력이 융합되어 감시받지 않는 특권 계층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

산업 플랫폼을 장악한 기술 대기업은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크다. 기업의 최고위층이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상당수 업무를 기계에 맡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조직화되지 못한 개인은 이러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 내 불합리와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 사례로, 올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¹³

13 반기웅, 「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경향신문』, 2023.02.1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141206001>, 2023.05.18. 접속

인공지능학자인 제리 카플란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 될 것이며, 결국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¹⁴

이처럼 인공지능이 잘못 활용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착각 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알고리즘 및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범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시 목적의 기록 수집을 제한하고, 정보 감시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상호 견제, 언론 자유, 시민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안 강화와 위협 예방적 탐지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다수의 안전과 관련된 기반 시설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집단이 부와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수

14 김용수, 「“AI, 디지털인간 아닌 진화한 자동화 기술”(제리 카플란 스탠퍼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 인터뷰)」, 『시사저널이코노미』, 2021.09.02.,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dxno=235585>, 2023.05.18. 접속

집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세부 내역의 공개와 사용자에게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커진 권한을 견제하고 필요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로봇세’와 ‘정보세’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법인이 운용한 로봇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운용 주체에 책임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결함이 있는 로봇을 제조한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집중화는 특정 세력에 의한 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 통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개방성’에 있다. 정보가 폐쇄된 사회는 소수의 통제에 취약하지만, 개방된 사회에서는 상호 견제에 의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가능하다. 특정 세력이 인공지능을 통해 전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개방을 통한 개인의 자유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칼 포퍼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자하는 모든 전체주의적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¹⁵ 밀실에서 벗어나 상호 비판과 감시가 가능할 때에 비로소 오류가

15 칼 포퍼, 이한구 역, 『열린사회와 그 적들1』(민음사, 2006), 칼 포퍼, 이명현 역, 『열린사회와 그 적들2』(민음사, 1998)

시정되고, 권력은 남용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전체를 시도하는 소수의 적들로부터 인공지능을 지켜내고, 진정으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주제 '여행'

한 번쯤은, 인도

조하경 언어청각학부

보통 여행이란 목적을 갖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제목 그대로 80일 안에 세계 일주가 목적이었고, 마르코 폴로 Marco Polo는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허클베리 핀 Huckleberry Finn은 제약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났다. 그러나 지난겨울에 떠났던 나의 여행은 목적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훌쩍 벗어나는 여행이었다.

여행의 본질은 ‘사서 고생하는 것’. 흔히 다녀오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행보다는 휴양에 가깝다. 자국에서 축적한 고생을 돈으로 환전한 후, 이국에서 여유롭게 서비스를 받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누리고 오는 휴양. 스트레스받을 일은 없다. 잔말 말고 지갑을 열라고 재촉하는 메뉴판의 한글 보급으로 언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한국어가 가능한 고기능 직원들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소 높은 시급으로 고용된다.

반면, 내가 다녀온 인도 여행은 ‘고생’이라는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행(苦行)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정처 없이 떠난 인도에서 무엇을 얻어 왔는가? 왜 하필 인도였을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인도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인도여야만 했다. 막내의 제안으로 삼 형제끼리 첫 외국 여행을 인도로 가게 된 것이다. 입학 전 여유로웠던 시간, 마침 퇴사 신청까지 해놓은 일자리. 여행지는 고민할 것도 없었다. 막내의 제안에 삼 형제 전부 눈을 번뜩이며 곧바로 인도행으로 결정했다.

의아한 점은 ‘어째서 인도였나?’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처음 고민해 본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나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지”라고 한비아 작가가 내게 심어준 인식 때문일까.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여긴 적은 없는데 말이다. 혹은 마음고생이 아닌 극한의 환경에서 ‘진짜 고생’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나이는 점점 차오르고 숨이 가쁘게 느껴지는데, 이뤄둔 것도 없이 점점 나의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갔다.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습관적인 무기력증 속으로 침잠해 가던 차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본능이 발동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을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투기해 “자력으로 살아남아 보라.” 하고 자체시험을 시행한 것일 수도 있다. 기왕 시험을 치르는 거라면, 여행 난이도 최상으로 악명 높은 인도가 내게 딱 맞는 여행지였겠다. 그렇게 우리 삼 형제는 인도로 향했다.

첫 도시, 캘커타Kolkata

인도 여행 첫 도시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도였던 캘커타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가자 말로만 들던 혼란에 압도되었다. 차선은 무용지물이었고, 백미러 따위는 없는 차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에게 교통신호는 운전대의 경적이 전부였다. 인도에서는 새 차를 출고하자마자 백미러를 떼고 경적의 음량을 최대로 조절한다는데, 이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현지인들은 모두 우리를 과하게 반겼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반긴 것이겠지만 말이다. 상인이 손님 앞에 줄을 서는 이 생경한 모습. 어떤 목적 없이도 현지인들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인도에 오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동생들과 합심해 돈독 오른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겨우 적정가까지 흥정한 후 숙소로 향했다. 도착 후 짐을 풀고 일단 목이라도 축이자 싶어 동생에게 “숙소 근처에 편의점 있어?”라고 물었더니, 동생은 피식 웃으며 “형, 인도에는 편의점이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생각보다 고된 여행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인도는 발을 딛자마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흠집을 내고 있었다.

숙소에서 나와 간디Gandhi의 생가, 마더 테레사Teresa의 유해를 본 후, 인도 최대의 꽃 시장이 위치한 하우라 다리Howrah Bridge까지 들른 후 하루를 마쳤다. 돌아오던 길에 숙소 앞에서 마주친 관리자는 숙소 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니 우리에게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했다. 우리는 규칙을 따랐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던 우리는 목격했다. 기껏 해봤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피죤맨발의 아이들이 길거리 개들과 까마귀 떼에 둘러싸여 우리가 어젯밤 버린 쓰레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있던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천진한 표정의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하고 있었다. 엄밀한 아동착취. ‘아수

라(阿修羅)’였다. 비위생과 무질서는 적응할 수 있었지만, 비인권과 부도덕은 견뎌내기 힘들었다. 그때 튀어나온 헛구역질은 오물과 오수에서 뿜어 나오는 냄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캘커타를 떠난 후에도 우리는 인도의 모든 도시에서 조막만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뿌연 양젓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빨래하던 도비가트Dhobi Ghat의 아이들, 탄두리 화로 앞에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굽던 암리차르Amritsar의 아이들.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생글생글 웃던 그들의 순박한 미소였다. 휴양이 아닌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한 나라의 어둡고 추악한 이면이었다.



델리Delhi의 스님

델리의 빠하르간지Paharganj에는 한국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있다. 나빈이 운영하는 ‘나빈 가게’이다. 한국어를 독학해서 배웠다는 나빈은 서툴지만 정확한 문장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준다. 사기가 기본값인 인도에서 양심을 간판에 걸고 장사하는, 고된 인도 여행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곳이다.

그곳에서 스님을 한 분 만났다. 해인사에 27년간 몸담으시고 현재는 가스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칩거하고 계신다는 스님. 승려 생활을 하며 영양 불균형으로 앞니가 서너 개 빠져 발음은 사방팔방 새는 와중에도 입담이 어쩔 이리 좋으신지. 우리 삼 형제는 스님의 유머와 입담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배를 잡고 웃었다. 우리가 스님임을 의심하자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속 ‘승려증’을 툭 꺼내놓으셨다. 스님에게 지갑이라니. 게다가 고급 가죽 지갑이라니! 이리 속물스러울 수가. 스님도 주민등록증같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그러더니 우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며 우리를 끌고 맛집을 찾아가셨다.

빠하르간지 중심에 있는 식당 옥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주문하기도 전에 가방에서 참이슬 빨간 뚜껑 두 병과 골뱅이 두 캔을 꺼내 놓으시더니 다 같이 한잔하자고 외치시는 스님. 스님이 은퇴가 가능했었나? 인도에서 한국 스님과 소주를 마시게 될 줄이야. 우리는 소주와 골뱅이, 치킨 볶음밥을 해치우고서 2차로 펍으로 향

했다. 힌두 국가 특성상 주류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내게 여행 동안의 강제 금주는 버티기 힘들었다. 호텔에서부터 알코올을 쏟아부으라는 아우성이 들렸기에 그녀는 많이도 마셨다. 스님과 술자리는 금지된 것을 깨부수는 은밀한 짜릿함이 느껴졌고,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 스님과 생맥주를 연거푸 들이켜는 경험은 정말이지 진귀한 경험이었다.

스님은 인도 북부에 포진된 불교 관련 유적지를 방문한 후, 싯다르타가 태어난 네팔로 가서 성지순례를 마친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거나하게 취한 스님은 내게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기에 조만간 떠나보내야 하는데, 장남인 당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당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아직 두 눈 뜨고 계신데도 벌써 형제자매들이 싸움조짐이 보인다고 하셨다. 20대에 출가하여 속세를 떠난 스님은 자신은 유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 하시길래, 본심을 여쭙자 “당연히 자기 몫도 챙기고 싶다.”는 스님. 스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은 종교인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였다.

돈 때문에 가족과도 얼굴을 붉히며 고성으로 싸우는 사람들. 사람 냄새는 지독하다가도, 오랫동안 말지 않으면 그림고 오랜만에 말으면 고소한 게 묘하다. 그런 스님에게 한국에 가서도 뵙고 싶다면 연락처를 청하자, 스님은 전화번호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인연이라면 만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미련이 남아 아쉬워하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님은 진중하다. 스님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 스님은 지갑이 없다. 스님은 돈을 싫어한다. 나의 단단한 편견을 한 겹씩 벗겨 주는 스님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런 모순에 점점 마음이 동하는 와중, 미세먼지 가득한 뉴델리 하늘에서도 꽤 볼 만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다.

인도의 걸인들

인도 여행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을 꼽자면, 어딜 가나 달라붙는 걸인들이었다. 호객하는 상인들과 함께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귀찮게 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끊임없이 부랑자들이 다가와 때 묻은 두 손으로 굽실거리며 동냥을 청했다. 평범한 걸인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갓



난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 아이들과 함께 구걸하는 어머니, 공해가 가득한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를 공연장으로 만들어 조그마한 자기 딸에게 곡예를 시키는 아버지…… 차마 쳐다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았다. 어느 한 골목에서는 노숙자들로 뿔뿔히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다.

현지에서 사귄 인도인 친구는 “가슴 아프다는 거 알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적선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걸인들은 지역마다 배치되어 관광객의 돈을 수금하는 카르텔이고, 그들이 안쓰러워 적선하는 순간 걸인을 한 명 더 만들어내는 거라고. 처음에는 그들을 보며 동정심이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가시다는 마음이 커졌고, 여행의 막바지에는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그런 둔중한 충격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그들을 방치하는 이 인도라는 국가가 미웠고, 이 국가의 수반들이 미웠다.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사회복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대했나

여행 내내 맞닥뜨리는 생생하고 날 선 불행 앞에서 내가 겪어왔던 불행은 화마 앞의 촛불처럼 소소해져 버렸다. 거대한 불행 앞에서 나는 다리 힘이 풀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인간에게 있어 불행에 위로가 되는 건 오직 타인의 불행뿐이라 했던가. 그들의 압도적인 불행 앞에서 나는 싸구려 위안을 얻었다. 이 얼마나 저질인가! ‘이런 불행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편이군.’ 하고 자기 위안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최하의 위안이란 말인가?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은 그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 ‘운’ 하나뿐이었다.

두 달간의 인도 여행은 긴 여행에 지치기도 했고, 많이 아팠으며, 향수병이 일어날 만큼 고된 여행이었다. 그러나 어떤 목적도

없이 기대하지 않고 떠났던 인도는 책 한 권은 가뿐히 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굳은 사고를 부수고 시야를 넓혀주었던, 내 세계를 확장해 준 여행이었다.

인도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지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 돈과 노동……. 이처럼 모순적이고 답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들을. 의문의 해답을 찾아 나는 또 다른 여행을 떠난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답이 없어도 좋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부서짐을 반복할 것이다.

주제 '여행'

촉감놀이

김태호 빅데이터학과

프롤로그

‘촉감놀이’. 촉각을 통해 만지고 있는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물건과의 차이를 느끼고 비교하며 인지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손을 뺀고, 담고, 쏟고, 쥐는 등 다양한 동작을 하며 활발한 신체 발달도 이룬다.



섬

여행이라는 주제는 나로 하여금 심장이 뛰게 만들었다. 모두 어렸을 때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양 끝을 잡아서 목에 둘러 망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쪽 팔은 허리에, 오른쪽은 하늘 높이 쪽 뺨어 슈퍼맨 자세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날 여행을 처음 했다.

여행을 가기 전 ‘설렌다’, ‘두근거린다’라는 말을 다들 해본 적이 있지 않나? 하지만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 ‘여행이 순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 돼…….’라며 우리는 항상 ‘걱정 반 설렘 반’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바로 무언가를 도전하는 행위 단계에서 말이다. 우리는 도전을 쉽게 하지 못한다.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실패를 생각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나? 없다. 여행 가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도전하는 것

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라는 말을 주절거리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직접 인지하여 느끼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읽기 전에 우선 책상 위 어젯밤에 끄적이던 노트 위나 중요한 걸 적기 위해 구석에 방치되었던 포스트잇 같은 곳에 ‘할 수 있다.’라는 마법의 주문을 적고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내 뒷모습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

내 생각을 공유하여 당신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Chapter1. 직접 느껴봐야 알지

‘그림의 떡’.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다. 내가 게임 캐릭터를 돈 주고 살 때 말이다.

초등학생 때, 실내화 가방을 양발로 번갈아 가며 뽕뽕 차던 나는 사촌 형이 알려준 게임 덕분에 내 유일한 취미는 게임이 되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집에 가서도 또 놀았다. 게임을 하며 의자에 앉아 다리는 양반다리를 하고 눈은 화면을 고정한 채 30초에 겨우 한 번 깜빡이며 게임에 몰두했다. 내 캐릭터는 한 마을의 무자비한 도적이었다. 하지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을에

나타난 몬스터를 해치운다…라는 나만의 설정을 하고 게임을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상상력이 풍부했으니까.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이다. 메이플스토리는 단풍 모양의 로고를 하고 있다.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면 1레벨부터 시작하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렇게 나는 여행을 떠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거리를 활주한다. 처음 나에게 주어진 건 나무 몽둥이 한 자루였고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몽둥이로 마을에 나타난 몬스터를 잡아 성장하여 더 강한 장비와 무기로 보스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튜토리얼이 끝나게 되면 빅토리아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여 배를 타고 마을로 향하게 되고 마을에서 각자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면 된다. 정말 재밌지 않은가? 게임 안에서 여행을 떠나다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매번 다니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도 졸업 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냐며, 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 친구와 나는 서로 처음 가는 일본 여행이라 밤낮을 새우며 계획을 짜고 여행을 떠났다. 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이며, 사람들의 평점을 많이 받은 식당은 어디인지……, 그렇게 계속 준비했다.

무리 없이 우리는 도착했다. 낯선 곳에 발을 딛으며 친구와 나는 동시에 ‘やった-(야호)’를 외치며 일본에 온 것을 실감했고 제일 먼저 환영해 준 것 것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마리오였다. 우

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돌아다녔다.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마치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당연히 발바닥이 이를 견디지 못했고, 근처 다이소 매장에서 깔창을 샀을 정도이다.

힘들었다. 에너지를 다 썼다. 낯선 장소에 익숙해져야 하는 건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렇게 계속 긴장하면서 돌아다녀서 그런지 사진도 많이 못 찍었다. 눈에 담기 바빴다. 느끼기 바빴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다음 일정을 가기 위해 버스 시간표를 보고 내일은 어디 갈지 친구와 회의하며 밥을 먹었다. 정말이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 나이는 19살이었다.

이미 그때 느낀 건가?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도 내가 예상했던 아웃풋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Chapter2. 채워지지 않는 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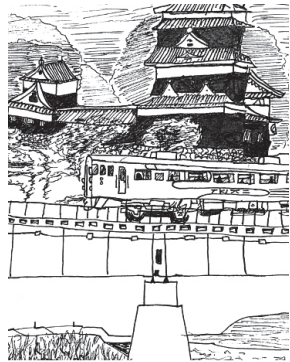
19살에 갔던 곳은 오사카였다. 도톤보리 근처에 숙소를 잡고 우리는 거리를 확보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오사카는 한국어가 많이 보이는 곳이었다. 같은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지만, 익숙한 언어가 있으니 그 길을 따라 맞춰진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 일본 사람들이 자주 가는 로컬 맛집이라는 리뷰가 있어도 한국어 메뉴판이 있고 주위에서는 한국어가 들린다. 마치 키자

니아에서 직업 체험을 하러 가는 것처럼 나도 일본 체험을 하러 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점원도 한국어를 잘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편하게 관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은 분명히 좋고,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행 내내, 내가 생각한 여행이 아니라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오사카를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다들 “나도 거기 가봤어~” 라며 모두가 입을 맞추듯 말했다. 대치동에서 부모님이 좋은 학원에 자식들을 옥여넣듯이 나도 일본이라는 학원에 억지로 발을 들이밀다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여행은 오지를 탐험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매 순간을 맞이하는 것인데, 뭔가 알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찬 기분이었다. 즐겁게 여행을 갔다 오고도 말이다.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가고 싶었다. 같이 갔던 친구와 군대를 제대하면 일본에 다시 가보자고, 그때는 우리 한 번 가봤으니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고 한 번 가봤던 오사카가 아닌 도쿄에 가보자며 마음의 지도에 핀을 꽂았다. 실제로 여유 있게 설정했다. 일



오사카 성

정을 길게 잡았다. 새로운 친구도 함께 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걸 말했다.

1. 하라주쿠에서 옷 구경하기
2. 신주쿠에서 술을 마셔보기
3. 아키하바라에서 피규어 사기
4. …… (이하 생략)

각자 하고 싶은 일을 대략 10개 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 우리의 목적은 모험을 떠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서로 좋은 추억을 남기자는 것에 동의했다. 적어도 같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작은 계획을 세워야 했다. 새로운 친구는 일본을 처음 가보기에 친구와 내가 리더를 했다. 7박 8일 정도 여유 있게 날짜를 잡아서 우리는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모든 게 여유로웠다. 이렇게 우리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는가 싶었지만, 4박이 넘어갈 때쯤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나는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지만, 친구는 행복하고 기쁘고 힐링이 되는 걸 하고 싶어 했다.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했다. 예를 들어 목적지를 헤맬 때 해결하는 방식도 달랐다. 누군가는 검색을 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냥 도전하다 안되면 다른 걸 하면 된다는 방식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3명이었기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리 없이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찔했고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서로 화를 주체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얼굴 근육을 사용하

는 게 보였으니 말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마지막 전날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고 따로 움직이는 게 어떨까?” 나는 적극 찬성했다. 진즉에 여행 중에 만약 혼자서 도쿄 시내를 돌아다닌다면 어떨까 상상놀이를 하던 차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지는 않을까? 라는 갈증이 있었다.

다들 각자 떠났다. 우리 숙소는 아키하바라 근처였기에 19살에 같이 갔던 친구 지훈이는 아키하바라 근처로 갔고 새로운 친구 기문이도 아키하바라 근처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아 다시 궁리질을 하고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였다. 주문은 어렵지 않았다.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점원은 내게 돈을 요구하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일단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공책을 펴고 펜을 들었다. 군대에서 내 유일한 취미는 그림이었는데 전역하고 들지 않았던 펜을 오랜만에 들었다.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유일한 취미였던 그림은 느낌 있게 그릴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획을 그으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는데 뭐랄까 갑자기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카페에 온 걸까? 펜을 잡으니 마침 대각선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

그 역시 팬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를 찬찬히 구경했다.

그림을 취미로 시작하고 나서 잘 그리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나: 그림은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 거야? 아니, 어떤 느낌이 와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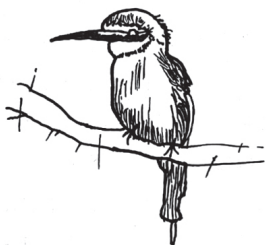
친구: 네가 어떤 사물을 그릴 때 그 뒷모습을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어?

나: 뒷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려?

친구: 많이 봐야지. 많이 그리고. 많이 경험해 그게 제일 좋아”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나무를 그렸다. 나무의 뒷모습은 나무의 결이 있으니 내 멋대로 상상하며 그렸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무의 뒤를 봤다.

내가 그린 그림과 나무의 뒤는 전혀 달랐다. 내가 보는 나무는 해가 뜨는 쪽이어서 나무의 색상이 뒤와 달랐고, 해가 자라는 쪽이어서 풀이 많았지만, 나무 뒤편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았다. 나무 뒤는 그늘이 지고 있어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쉬고 있었고 나무 뒤편 위에는 새가 있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새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

일본 아키하바라 근처에 숙소를 잡고 혼자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시작하던 내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다. 앞에 앉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을까? 카페에서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더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무슨 색상의 펜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었을까?

전혀 몰랐을 것이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두근거리고 설레었다. 드디어 여행을 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감정이었다. 깨달았다. 경험이 왜 중요한지, 생각이 많으면 왜 글을 써야 하는지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라는 어른의 말도 생각났다.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해가 갔다.

Chapter3. 솔직한 나

(생략)

Chapter4. 홉플러스 장난감 코너

(생략)

Chapter5. 어라?

(전략)



British Columbia Parliament Buildings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당 앞 초록색 잔디밭에 앉아서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거리를 지나가는 개를 구경하다가 그리고, 가족들끼리 소풍 온 것도 구경하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날의 날씨는 화창했고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해가 너무 뜨거워 나무 그늘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 여행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핸드폰 카메라로 물체를 담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장면을 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핸드폰 카메라는 짧은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순간이 아닌 모두를 담을 수 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내가 선을 긋는 간격이 달라지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덧대 그려 더 많이 그릴 수 있다. 이처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지나간 선들은 하나의 추억이 되어 고스란히 남는다.

갑자기 그림 여행이 되어버린 나는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선착장 앞에서 이어폰을 꽂고 팝송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라?’ 느낌이 이상했다. 초등학교 때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라는 노래를

들려줬었다. 어릴 적에 검정 고무신, 포켓몬스터를 떼고 무한도전으로 넘어갈 때쯤에 외국인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 어릴 적 기억 속에 외국인은 게임 NPC(non-player character)와 같은 존재였다. 사촌 형이 알려주는 게임 속에서 NPC는 설정한 임의의 캐릭터일 뿐이지 사람들이 직접 조종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게임 속 NPC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내가 앞서 말했던 메이플스토리라는 곳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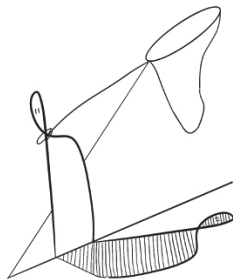
무슨 노래 들을까?

‘그 게임 안에서 배를 타고 나는 모험을 떠나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곳... 어라...? 뭐지?’

Chapter 6. 직업: 모험가

나는 게임 안에 들어온 것이 맞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빅토리아 항구다. 나는 배를 타고 이곳에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삼박자가 딱 들어맞고 이런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어렸을 적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 진짜로 이 세상은 큰 게임 속 세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마치 게임 속의 퀘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한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수많은 퀘스트를 진행하게 돼 있고, 나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퀘스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나는 게임 속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강한 신체와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파티를 맺어 같이 성장하기도 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좋은 회사 또는 더 높은 지식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인생에서도 수많은 퀘스트들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기’, ‘부모님께 효도 하기’, ‘자격증 공부하기’ 이 수많은 과정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수많은 퀘스트들을 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마치 말이라도 합친 듯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하셨어요”라는 말을 한다.



조여오는 외로움

‘나는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아니야, 지금 알았으니 다행인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나는 몇 번이고 나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캐나다 갔다 온 후에 한둘씩 내 미래를 약속했고 계획을 세웠다. 테마는 경험이었다. 도전 속에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고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 운동은 꾸준히 일주일에 4번 이상 갔다. 2시간 운동하고 10시간 공부와 일을 하며 2시간 취미 활동을 하고 2시

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8시간 잠을 잤다. 이 과정은 조금도 조금해서는 안 되고 빠르면 안 된다. 대충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인 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우리의 뇌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 할 수 있다. 경험이 있는 데이터는 빨리 판단을 내리지만, 경험이 없는 데이터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다. 서로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은 참으로 신기했다. 게임과 다른 점은 이것이다. 게임은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출발선이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혹독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좌절할 것인가? 그건 더 안 된다. 도착 지점은 같을 수 있다. 끝까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여행은 생각의 관점을 바꿔준다. 아무도 모르는 ‘곳’과 ‘것’이 여행이 아니고 무언가 몰두하여 ‘그곳’에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just travel

주로 취미생활을 할 때 몰두한다. 이 집중력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우울할 수도, 기쁠 수도, 행복할 수도, 지칠 수도 있다. 한 감정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다. 다양한 감정에서 보고 느끼는 건 다르기 때문이다.

Chapter 7. 나는 매일 여행을 떠난다.

‘과정’은 ‘결과’를 낳는다. ‘경험’은 ‘실패’를 줄여주고 ‘도전’은 ‘용기’다. 나는 지금 여행을 떠나러 간다.

완성은 있지만 완벽은 없다.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계속해서 배우고 적용하면 완벽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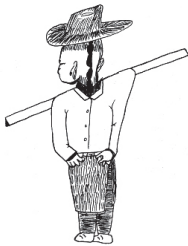
에세이에 실렸던 그림들



월 봐!



후회는 서랍에 담아두자



고독한 성수 패션



선착장에서 본 어느 한 버스



무슨 노래 들을까?



카페에서 본 어느 빌딩

주제 '여행'

개구리가 원하는 여행

최연진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꼭지탕에 개구리 죽는다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의 시간은 아직도 5년 전에 멈춰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을 때이다. 중학교 3학년이 지나고 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내 기억 속의 온전한 추억 여행은 ‘제주도 수학여행’이 되어버렸다.

여행 가기 전, 들떠 있던 나의 10대 시절 설렘의 순간들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뭘 하고 놀지에 대해 몇 날 며칠을 재잘거리며 고민하던 순간들, 비행기를 처음 타는 친구들과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고받던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이야기들,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새 옷을 준비하던 순간들이 나를 추억 여행으로 떠나게 한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던 나의 수학여행은 결국 아쉽게 마무리되었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속상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단체 여행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시작은 좋았으나 단체 여행은 족쇄가 되었다. 계획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답답함이 줄곧 나를 괴롭혔다. 좀 더 구경하고 싶었고, 친구와 멋진 사진도 찍고 싶었으며, 기념품도 여유롭게 사고 싶었지만 정해진 시간과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기에 모든 것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친구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면서 즐거

올 것만 같았던 수학여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버스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남은 일정을 항상 그 친구와 함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여행은 끝날 때까지 가시방석이 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여행을 떠올리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깊이 남아있다.

우물 안 개구리

핑계인 걸까? 코로나가 나를 집 안에 가둔 동안, 나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렸다. 마지막 여행을 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여행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여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함께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몇몇 친구들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저곳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친구들의 여행담을 보고 듣다 보니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생이 된 지금, 여행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중3 수학여행이 겨우 나의 추억인 걸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내 상황이 답답했고, 새롭게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금세 핑곤했거리를 찾고 있었다. ‘우선 여행을

가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핑계를 대는 내가 답답했다. 누구와 어떤 여행을 할지조차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 자신을 보며,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작은 방 안에 갇혀 컴퓨터와 핸드폰 속 세상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넓고 자유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발견했다.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다람쥐 쳇바퀴’ 같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물 밖 세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춘천댐, 가평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처럼 나만의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곳부터 찾아 나서야겠다고 다짐했다.

개구리도 음쳐야 뿔다

창밖 세상을 보며 더 넓은 세계를 꿈꿔본 적이 있는가? 여행도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던 순간이다. 5년 전 수학여행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의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 혹시 ‘코로나19’의 여파가 나를 잠식해 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

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나에게 여행이란 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남들의 무언가를 따라가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찾아가는 ‘소확행’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꿈이 생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시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 있다’라는 느낌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안고 살아간다. 여행이야말로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아닐까?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날개가 필요하다. 분명 여행은 나에게 자유로운 날개가 되어줄 거란 확신이 있다. ‘여행’은 틀에 갇힌 나를 꺼낼 기회이자,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키워드가 될 것이다.

여행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경험을 줄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볼 것이다. 이런 다짐 속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우물 밖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설렘을 느끼는 나를 발견한다. 이번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춘천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를 벗어나 필요한 용기를 내어 우물 밖 변화를 시도해 보려 한다.

미래에는 여행이 왜 좋은지 몰랐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낸 내가 있기를 바란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을 나 자신을 꿈꿔본다.

주제 '여행'

나의 나이대와 나이에

김수림 사회복지학과

화창한 날씨,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내심 짜증이 나고, 아까 마신 음료수가 소화되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불상사까지 생겼다. 계속 한숨만 쉬다가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생각하지 말자는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멍을 때렸다.

문득 바라본 나무들은 햇살을 받아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의 나와 아빠가 떠올랐다. 커다란 나무 같던 우리 아빠는 춘천 산림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산림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격적으로 임업 사업을 시작하셨다. 지금의 내 나이대였던 20대 시절의 아빠는 맑은 공기 가득한 나무들 사이에서 재잘거리는 아이들을 보셨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휴양림에 온 아이들은 요즘처럼 익숙한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를 쥐고 있지 않았다. 흙과 교감하고 나무와 대화하며 서로 슬래가 되어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던 아빠는 휴무일이면 나와 동생들을 데리고 휴양림에 가시곤 했다.

그 시절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른 친구들은 놀이공원이나 명동 시내에 나가 돈가스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는 뭐 했어?”라고 물었고, 나는 휴양림에 다녀왔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곳에 안 가봤냐며 나를 별난 사람 취급했고, 심지어 나랑 놀지 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학교가 끝난 뒤 엉엉 울며 집에 돌아오면 깜짝 놀란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이나며 묻곤 했다.

내 얘기를 들은 아빠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내 자리를 떠났고, 나는 엄마에게 “다음번에는 우리도 놀이공원 가면 안 돼?”라며 울먹거렸다. 잠이 들 때도 작은 손을 모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동생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 나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박수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는 휴양림에 가게 되었다. “이게 뭐야, 아빠 미워!”라는 생각이 들어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 목이 떠나가라 울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엄마는 짐짓 굳은 표정으로 “그만 울어!”라며 다그치시기도 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눈물을 그치자 아빠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흐린 눈을 비비고 바라본 곳에는 싱그러운 초록 잎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아빠는 잠시 뜬눈을 들어더니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나무 같은 존재란다. 아무리 곁이 볼품없어 보여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뿌리란다. 그 뿌리는 스스로 내면에서 키워야 한단다. 사람의 밑바닥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평소 어떤 행실과 인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금세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울곤은 나무는 아무리 베어내려 해도 그 뿌리만큼은 건드릴 수 없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멍하니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내 표정을 보며 “네 이름이 왜 수림인지 아니?”

라고 물었다. “닭을 수(修)와 수풀 립(林) 자를 써서 ‘숲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며 보듬어라’라는 뜻이었단다. 나무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 항상 중심에서 배려를 실천하며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당시 나는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이 우리가 어떻게 크길 바라신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커다랗게만 보였던 아빠라는 나무는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내가 훨씬 커진 지금, 주변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컸니?”라며 놀란다. 이제는 아빠와 술잔을 부딪치는 나이가 되었다. 하루는 아빠가 술을 드시며 “어릴 때 너희를 놀이공원에 많이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갑자기 옛 생각도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빠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절대 아니에요. 마음 쓰지 마세요. 어린 시절 휴양림에서의 추억은 제게 자랑이에요”라고 답해 드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말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엔 엄청 크고 단단하고 멋진 영웅 같았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없이 작고 여린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하루를 살아내고 이만큼 자란 나의 나이테는 부모님의 나이테와 맞바꾼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나의 나이테는 곧고 튼튼하게 자라 풍성한 잎들을 뺏어낼 것이다. 먼 훗날 내 아이에게도 잠시라도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잎을 틔우고, 내 내면에 촉촉한 나이테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아빠의 바람대로 단단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

주제 'MZ세대'

MZ세대란 정말 존재하는가

이유진 정치행정학과

한 세대를 특정한 용어로 구분 지어 나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일이다. 전쟁 후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들을 586세대라 부르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최근 ‘M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 용어가 등장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MZ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MZ세대의 특징,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MZ세대의 문화’ 등 MZ세대에 관한 각종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도대체 MZ세대란 뭘까? MZ세대MZ generation란, 밀레니얼Millennials의 M과 제너레이션Generation의 Z가 합쳐진 것으로¹,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MZ세대가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² 이러한 MZ세대에 관한 설명을 몇 번씩 들여다봐도 웬지 모를 묘한 이질감이 당최 지워지지 않는 건 왜일까? 바로 MZ세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

1 김창윤, 「MZ 세대 맞춤형 소비전략이 필요하다」, 『제주매일』, 2021.3.22.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291>(접속일 2022.4.28.)

2 MZ세대(출처: 환경 경제용어사전|한경닷컴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4683>)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대의 구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MZ세대의 정의에 따르면, 2000년대에 태어난 필자와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세대다.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집단을 진정 같은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필자는 3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다. 남매 간의 가장 보편적인 나이 터울이다.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필자와 오빠 사이에는 분명한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 과정에도 사소한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진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도 다르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토요일에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학교에 가던 기억이 다소 흐릿하지만, 초등학생을 거쳐 중학생 때까지 토요일에 등교했던 오빠는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이 무척 뚜렷하다. 필자보다 나이가 서너 살 정도 더 어린 사람은 노는 토요일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필자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사촌 언니가 있는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언니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환경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불과 1~2년 사이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이 빠른 세상에서 자라온 환경, 문화,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을 같은 세대로 묶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두 번째, MZ세대라는 구분은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세대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과의 갈등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진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소위 MZ세대에 해당하는 젊은 층은 노년층을 ‘꼰대’ 취급하고, 노년층은 MZ세대를 보고 ‘요즘 것들’이라며 혀를 내두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과 요즘 신입 사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글이 공존하며 꼰대 특징, MZ세대 특징이라면서 서로를 비아냥거리는 글이 각종 SNS에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정말 MZ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며, 이기적일까? 반대로 노년층은 복종을 강요하며, 배려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일까? 당연히 아니다. 일례로, 필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태도에 관해 부모님께 조언을 자주 구하는 편이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놓칠 수 있는 말투, 예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필자의 부모님이 필자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음을 느낄 때가 있다. 역으로 ‘젊은 꼰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처럼 성격과 태도는 개인의 성향일 뿐 절대 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MZ세대라는 구분은 MZ세대다움을 강요한다. MZ세대의 특징을 읽으면서 그 특징에 공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자는 MZ세대에 해당하는 나이이지만, 세간에 떠도는 MZ세대의 성격과 다른 부분이 많다. 필자는 변화를 좋아하지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도전을 싫어한다. 반면 필자의 오빠는 필자와 정반대다. 변화에 유연하고 도전하기 좋아하며 자기주장을 거침없이 펼친다. 그렇다면, 필자의 오빠는 적절한 MZ세대이고, 필자는 부적절한 MZ세대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필자와 필자 오빠의 성향과 성격이 다른 것일 뿐이다. 필자는 MZ세대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누가 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르는 MZ세대의 특징이 종종 필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MZ세대라는 구분은 이분법적 사고를 부추길 뿐이다. 근래에도 MZ세대의 특징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필자는 그런 논조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MZ세대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MZ세대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언론 보도나 각종 TV 프로그램, 기사 등에서 MZ세대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Z세대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세대 구분 용어다. ‘MZ세대’와 ‘MZ 아닌 세대’로 세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성격과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주제 'MZ세대'

NG시대

고윤주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아, 꼰대야 뭐야.”

“하어튼 요즘 애들이 문제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층으로부터 그 이상의 어른들은 기성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신세대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어느 순간 알파벳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 짓는 시대가 됐다. 이는 X세대, Y세대, Z세대 등으로 구분된다. 필자의 경우 21살이기 때문에 Z세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Z세대라 불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가끔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10대~20대가 공감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것은 다름 아닌 MZ세대이니 말이다.

수많은 이들이 MZ세대는 독특한 개성, 자신감, 삶을 즐기는 자세를 지녔다고 말한다. 집과 회사 또는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TV 방송, 유튜브, OTT, 광고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MZ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30~40대, 나아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MZ세대를 낯설게 느껴 동의어로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 ‘네이버TV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십분 클럽’을 보면 많은 이들이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내가 꼰대였어 ㅇㅇ?!” MZ세대가 없는 회식 자리에 꼰대 판정받은 장윤정* >으로 MZ, 즉 요즘 세대랑 다른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며 진행된다. 방송 게스트들의 나이는 30세부터 46세까지

로,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른, 서른하나라 우리도 MZ가 아니야?”라며 방송 중에도 MZ세대와 자신들이 다름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요즘 애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30대~40대 초반 출연자들도 다름 아닌 MZ세대라는 것이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로 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MZ세대=요즘 세대’이지만, 사실상 43살도 MZ세대인 것이다. MZ세대는 인터넷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던 1980년대 초반부터 온전히 정착된 2000년 무렵에 태어난 이들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현 2022년을 기준으로 10대 후반부터 43세까지가 MZ세대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의 34%, 즉 1/3에 해당하는 이들은 경제 활동의 주체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마케팅 업계에서 통칭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MZ세대의 발단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사전적 의미의 MZ세대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MZ세대의 의미가 다르니 말이다.

‘개인적이다’, ‘마이웨이’, ‘당연시된 스마트폰’, ‘SNS 사용’ 등 MZ세대를 대표하는 말로 알려진 문장만 봐도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니, 오늘날 진정한 MZ세대는 Z세대 한정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전 속 텍스트로 존재하는 MZ세대는 그저 디지털 시대로 묶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많은 이

들이 MZ세대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과거에
업메인 사전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오늘날은 세대를 나타내는 용어에서부터 ‘NG’가 나 버렸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같은 세대로 불리는 집단 내에서도 NG
를 외치게 만든다.

‘요즘 애들은’, ‘꼰대’, ‘잼민이’, ‘고인물’ 등과 같은 표현은
MZ세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말이다. 이미 그들은 서로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해 누구는 틀에 박혀 있다고, 누구는 예의가 없
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지나친 MZ세대 열풍은 결국 세대, 나아가
세상에서 NG를 정당화해 버렸고, MZ세대는 NG시대가 되어 버렸
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MZ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경제 발전이 한몫
한다. 사실 연도만 보면 20년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만, 인터넷
이 도입되며 눈 깜짝할 새에 발전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경험은 다
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대 규정보다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연
령층의 특징과 방향성, 생각은 다르기에 이에 관한 연구와 분석도
필요하다. 그러나 마치 모두가 그런 것인 양 세대별 특징을 규정지
어 특정 세대를 ‘특정 시선’으로 보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이해’
라는 행위를 시작으로 차츰 서로 돕고 보완하여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 5천만 인구가,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 만

들어 가는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의 NG는 이미 충분히 겪었다. 그러니 이제는 세대 구분이라는 틀 정도는 벗어나도 된다. ‘이해’, 그것은 NG가 난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이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꿈꾸며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을 먼 미래에 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자. ‘컷!’을 외치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그보다 멋진 영화는 없지 않을까? 누군가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이상적 세상의 완성보다는 비교적 이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진행되는 삶의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 모두가 ‘NG!’ 아닌 ‘오케이!’를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4

의사소통클리닉,
교수자들이 돌아보다

10년 시공간에서 발견한 것들

심보경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의사소통교육센터장

2년 전 센터장 보직을 맡았을 때의 설렘이 떠오른다. 국어사를 전공한 내가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처음 했던 작업은 센터에서 진행한 일련의 행사와 보도 기사, 프로그램 결과물, 사진·동영상 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기록과 결과물을 의사소통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cec.hallym.ac.kr>에 한곳에 모아 구축·관리한 일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일.

얼마 전 ‘10주년 기념 심비우스 프로그램 시상식·간담회’에서 수상자들의 빛나는 성장의 순간을 보았다. 북클럽을 통해 깊은 독서를 처음 경험해 보았다는 신입생과 복학생, 생각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 경험에 매료되어 매 학기 새로운 멤버들과 북클럽에 참여하였다는 졸업을 앞둔 학생의 소감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심비우스Symbious 프로그램을 기획·운영의 비하인드 스토리, 참여 대학생이 전해준 에피소드와 잔잔한 감동, 시상식과 간담회를 준비하며 얻은 배움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삶의 특별한 부분이 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심비우스 북클럽은 올해 22기를 맞이하였다. 북클럽은 매 학기 새로운 팀이 꾸려져 8주 동안 자신들이 선정

한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책과 서로를 통해 성장해 간다. 텍스트를 통한 사고의 확장과 성찰, 협업 경험을 담은 운영보고서에는 좌충우돌 북클럽 진행 과정과 활동 후의 성취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심비우스 북클럽은 개인의 조용한 독서가 타인과의 소통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며 변화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심비우스 독서골든벨은 자신이 읽고 생각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이다. 첫 문제부터 탈락한 아쉬움, 희망을 부르는 패자 부활전, 골든벨을 울리고 환호하는 순간까지 참여자들은 모든 순간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문제를 풀 때마다 사고가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골든벨을 울린 이 경험이 대학 내내 상 하나 없던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의사소통클리닉은 대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피드백하는 것은 글에 담긴 숨은 생각까지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에세이를 읽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가,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한 번은 에세이를 상담하며 “누구의 글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라고 했더니, “교수님, 제 글이 이렇게 선명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명확해질 수도 있네요.”하며 밝게 웃던 학생의 미소가 떠오른다. 마주 앉아 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피드백 공간에서 의사소통클리닉은 대학생과 교수에게 글을 다듬는 공간을 넘

어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클리닉이 된다.

10년 동안 꾸준히 지속된 심비우스 프로그램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의사소통교육센터의 표상이 된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 심비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관찰한 나는 의사소통의 힘을 재발견한다. 이제, 센터의 다음 10년을 기대해 본다. 10년 시공간 그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소통과 연대로 빛은 10년의 기록

김양선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전 의사소통교육센터장

10년 전 의사소통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하면서 운영위원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센터의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구상했던 때가 떠오른다. 남춘천역 근방의 작은 카페에서 소통의 ‘통(通)’과 독서와 글쓰기, 토론을 합친 4통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 책통(북클럽), 글통(서평대회), 말통(독서토론대회), 고전통(고전골든벨)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작명 센스에 뿌듯해하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사소통교육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무려 8년간 센터장 직을 맡았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열정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글쓰기 전담 교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10년을 넘긴 지금, 의사소통교육센터는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자기표현, 그리고 합리적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서토론대회를 제외하고 심비우스북클럽, 에세이대회, 고전골든벨이 센터 개소 이래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만의 작은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온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센터의 연혁을 읽어보니 수많은 학생들의 활동의 기록, 글

쓰기의 기록이 새삼 다채롭다. 매 학기 개최되는 심비우스 북클럽과 매년 개최되는 에세이 공모전은 단순히 수상작을 선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성장하는 장이 되었다. ‘팬데믹 코리아’, ‘MZ세대’, ‘인공지능’, ‘여행’ 등 에세이 주제들은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고전읽기골든벨(2022년 독서골든벨로 명칭 변경)의 지정도서들은 동서양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었다.

학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센터 초창기에 운영되었던 ‘하림교양필독서100선 서평대회’가 폐지되고(심비우스 에세이 공모전으로 변경),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과 시대적 변화로 인해 ‘심비우스 독서토론대회’가 폐지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관심과 독서 환경, 리터러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자 학생들의 열정이 매년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센터의 역사를 이루었음은 자명하다. 소통과 연대의 힘으로 쓴 10년의 역사가 있기에 앞으로 의사소통교육센터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길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된다. 학생들이 미래의 복잡한 의사소통 환경에서도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진 소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교육센터가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키길 기원한다.

손에 단풍 든다

김기우 일송자유교양대학 강사

우리 대학 기초대 건물 뒤로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저마다 잎사귀를 흔들며 물기를 말리는 나무들 사이로 등산객이 오른다. 뜨거운 가을별과 차가운 달빛을 되풀이 맞으며 물들어가는 단풍들과 함께 그들도 단풍 든다. 나도 사람과 나무 사이에 잠시 끼어 본다.

내가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에 강의한 지 스물두 해를 훌쩍 넘기면서 한림 의사소통 교육센터도 열 돌을 맞았다. 나는 글쓰기 상담하면서, 토론 입론서 수정하면서 ‘소통상담실’을 십 년 동안 드나들었다. 지난날 경춘선 무궁화호 같은 사회과학관 건물의 상담실보다 기초교육대학 16404가 훨씬 따뜻하다.

나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열정이 16404 상담실을 데워놓고 있다. 나는 상담실에 들어서면서 애써 차가워지려 서늘한 상담 탁자에 손을 갖다 댄다. 학생들의 글쓰기 잘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해 주어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들의 글쓰기 열망에 나도 금세 더워진다. ‘고백 글’에서 이미 보았듯 우리 학생들이 소통에 얼마나 애가 타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글쓰기는 자기를 기억하는 일이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신의 체험을 되살려 언어로 탁본해 나가는 일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먼저 자신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주문한다. 기억을 편집하는 일이 추억인데, 그 추억을 잘 갈무리하

라고 지도해왔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입시에 매진해 왔기에 자기 경험을 추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자신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글 쓰는 자기와의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할 때 원만한 소통이 이뤄진다. 자기표현은 그 거리에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일이라고 나는 상담실에서 자주 말해왔다. 마치 남사당패에서 외줄 타는 ‘어름산이’와 같다고 말이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이 된다고 덧붙인다.

나의 지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러한 상담실에서의 대화는, 강의실에서와는 또 다르다. 내 글쓰기 작업의 확인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소통 소망이 잠시나마 이뤄지는 시간이다.

상담실에서 ‘소통’하여 얻은 학생들 소통의 공부는, 희망과 성찰이 단지 그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교육센터>의 효용성이 바로 여기 있다. 글쓰기 상담은 개인적인 글쓰기 열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세계 전반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계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대화 수업이다.

단풍이 깊어 나뭇잎들이 최고의 빛깔을 뽐내고 있다. 나는 나무줄기를 잡아가며 기초교육대로 내려와 16404로 간다. 침삭하는 내 손에도 단풍 들어 있다.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현준 일송자유교양대학 강사

얼마 전 수업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10년 전 학생들의 과제 영상들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수업의 기말 발표로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고 영상을 찍게 하였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영상들을 부탁해서 받아놓았던 것들이었다.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은 서툴지만 다정한 영상을 보다 보니 15년 전 것은 물론 비교적 최근의 영상도 함께 보게 되었다. 잠시지만 추억에 흠뻑 빠져 있었고, 감정이 온전히 돌아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예전엔 강산의 변화를 10년 주기로 말했지만, 이 영상 속 학생들을 떠올려보면 최근의 학생들은 1년을 사이에 두고도 세대가 변하는 느낌을 받고는 한다. 교수자는 나날이 닳고 헤어지는데, 학생들은 더 푸르고 시시각각 변화하니 그 적응의 세월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1년 전 아이들과 또 오늘의 아이들은 참 많이 다르다.

과제를 주고받는 이메일도 이를 증명한다. 10년 전 아이들은 과제를 보낼 때 대부분이 간단한 안부라도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용적 이유로 주고받는 메일인데도, 어떤 학생들은 구구절절 긴 메일을 보내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귀찮아도,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말 그대로 '내용 무'다. 첨부한 파일이 모든 걸 대신한다. 가끔 '과제를 보냈니

다.'라는 문구 하나만 있어도 나름 감동을 준다. 학생들에게 이런 감정을 드러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다. 버릇이 없어 서운한 건 아니다. 그건 세대가 변했을 뿐이고, 나는 옛 세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어딜 가도 말과 행동이 짧다고 말한다. '철이 없다'는 말의 우회적 발언임을 알지만, 그래도 좋다. 늘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대할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다는 건 위로이기도 하다. 의사소통센터 10년도 아이들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글을 침삭해주거나 윤문해 주는 일 자체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글이 품고 있는 내용과 느낌은 매년 신세대의 등장을 보여준다.

지난 10년, 학생들 글을 읽고, 의견을 달면서 유연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삶의 선물이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점차 글쓰기와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말했듯이 이메일에 간단한 안부를 쓰는 것도 어렵게 느끼는 세대이다. 기본적인 띄어쓰기 실수는 물론 연이어 나오는 비문 등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솔직함이 요즘 아이들의 큰 장점이다. 그리고 빠른 주기로 바뀌어 가는 세대의 장점을 살려서 상담하는 건 상담 선생으로서의 몫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기록이다.

의사소통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글을 받고 침삭해주었던 지난 10년은 꽤 좋은 추억이다. 그중 일부는 긴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굵은 연을 맺었다가 끊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억은 소실되지 않고,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다. 조금은 귀찮고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나의 노력이 지금의 감정에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의사소통센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 정체성을 유지할지는 모르겠다. 생성형 AI라는 존재가 매 순간을 혁명의 시간으로 몰고 갈 테고, 글쓰기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AI가 생성하는 글을 자연스레 활용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생성을 위한 질문과 생성된 글을 수정하는 주도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글쓰기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이다. 의사소통센터의 선생으로서 그 중요성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생각이다. 그것이 학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1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요즘, 선생인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학생과의 대화, 또 다른 공부의 시작

심재욱 일송자유교양대학 강사

“일단 본인이 쓴 글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죠.”, “네.” 맞은편에 앉은 학생은 암전히 대답한 후 지난 주에 자신이 작성한 논증문을 읽기 시작했다. “어때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충분히 쓴 것 같아요?” 학생이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이 물었다. “글쎄요… 공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명확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공생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이 부분. 맞아요.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를 덧붙였으면 좋았겠네요. 음…” 학생에게 그럴듯한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던 선생은 말을 이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적 환대라는 개념을 말한 적이 있는데…”, “아, 알아요. 신원을 따져 묻지 않는 것, 난민을 받아들일 때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 그게 진짜 환대다… 고등학교 때 논술 공부하면서 지문으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 여기서 그 개념을 보충해서 넣으면 좋겠네요.”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잘 쓴 글이고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 앞에서 더는 할 말이 없어

진 선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연신 들이켰다. 학생도 선생이 사준 아이스티를 마시며 침묵을 이어갔다.

학생당 20분으로 책정한 의사소통클리닉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자 선생은 멧쩍은 듯 웃으며 의례적으로 물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어… 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뭐가요?”, “대학에서 이런 시간을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요. 고등학교 때도 늘 평가결과만 받았지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학생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을 거라 생각했던 선생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다. 그 학생이 원하고 만족스러워했던 것은 피드백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선생, 그런 선생과의 대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 2학기, 내가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강사로 임용된 첫 학기에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여러 우연이 겹친 놀라운 ‘사건’이다. 일단 첫 학기부터 나는 배정받은 두 분반 중 한 분반은 폐강되고 나머지 한 분반도 수강생이 20명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수강 인원이 적었기에 나는 의사소통클리닉을 1:1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의사소통클리닉이 처음이었던 나는 교내 카페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원하는 음료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름의 부담감을 덜어내고자 했는데, 이것도 수강인원이 적었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필요성을 느끼면 학생들은 선생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더 잘 배운다. 학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선생은 대화 상대가 되어 주고 옆에서 격려해주는 자다.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제시한 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첫 학기의 여유로부터 발견한 나의 교육철학이다. 그리고 이 교육철학 덕분에 나는 박학(博學)의 즐거움도 새삼 알게 됐다. 홍성욱, 김민형, 김영민,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박사논문을 쓰는 동안 좁아졌던 독서의 폭이 지난 몇 학기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넓어지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채경민 일송자유교양대학 강사

매 학기 새로운 질문을 받는다. 학생들은 제각각의 얼굴로 “AI의 발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잘 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등 좋은 질문을 한다.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변변하지 못한 답을 내놓으면서 속으로 더 친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생각한다. 답은 변변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도록 말이다.

의사소통은 언제나 불편하고 어렵다. 나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의 대상을 잘 알고, 그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의사를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와 당신, 언어와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쓸 때 그런 시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학생들의 다정한 질문과 만나게 된다.

의사소통에 대한 이런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학생들에게 여러 예를 이야기 한다. 이런 생각 쪽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때로는 여러 글을 보여준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피고, 그를 통해 더 가까운 우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 글을 쓰게 한다. 여러 이야기를 하게 한다.

그렇게 하다 때로는 부드러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렇게 하다 서로의 얼굴이 서로를 더 알고 이야기 나누는데 필요한 ‘부드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얼굴이 동반한

표정에는 맞춤법이, 띄어쓰기와 단락 구분, 문장 표현이 각각 웃음을 만드는 근육을 맡아서 역할을 다한다. 주장이 견해가 되기까지, 견해가 설득력이 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연구를 발언을 가져와, 논거를 만들기도 하고. 마침내 서로의 입꼬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셈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써나간 이야기를 뒤적이며 한 마디를 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어휘의 세계에서 맥락의 세계로 조금이지만 걸어 나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 ‘의사’의 ‘소통’보다 우리의 ‘의사’에 귀 기울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임을 조금이지만 서로, 배웠으니까요. 한 학기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가 모든 것에 앞섭니다. 무목적의 합목적성에 대해 생각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주요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해서요”라는 말을 하려다가, 더 친절하게 쓰세요,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라는 말로 같음한다.

이런 일들은 이뤄질 수 없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뤄질 수 없어서, 매 학기, 새 학기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한다.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어딘가에 이미 와있으나 나서지 않는 우리의 ‘의사’에 대해, 우리에게 대해 ‘소통’한다. 그렇게 지나온 매 학기였고. 새 학기도 그러하기를.

5

**보너스 트랙:
의사소통클리닉의 흔적**

의사소통클리닉은

본교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전용 공간에서 글 쓰기, 발표 및 토론 관련 상담, 재학생들의 독서 기반 논증문, 리포트, 자기소개서 등 모든 유형의 글쓰기 첨삭 진행 및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열 분의 의사소통 교과목 담당 교수진께서 상담을 진행해주시며 상담 절차는 의사소통 교과목 관련 상담, 일반 글쓰기 상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사소통 교과목 상담

- ① 한림 스마트리드 접속 ➔ <의사소통> 영역 강좌 클릭
- ② 상담 글 업로드
- ③ 담당 교수 확인 후 첨삭 글 업로드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비대면 상담 또는 대면 상담

일반 글쓰기 상담

- ① 의사소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cec.hallym.ac.kr>) 접속
- ② 의사소통클리닉 '상담신청' 클릭
- ③ 신청 내용 작성 후 등록(첨삭 글 업로드)
- ④ 의사소통클리닉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 교수 배정 ➔ 상담교수 첨삭 및 상담

의사소통클리닉 살펴보기

아래의 상담 자료는 2024년도 1학기~2학기 의사소통클리닉 상담일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심보경 교수

토론 입문서

2조	찬성팀 입문서	월요일 5th Mo by Kyung 2024-09-02 16:51 입문서에서 핵심용어에 대한 설명과 범위를 알릴 것 개인정보수집과 빅데이터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더 설명하기를 바람
논제: 개인 정보 수집과 데이터 활용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찬성 측 입문		

개인별 상담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망치고 있다	월요일 1 HALL'YM 2024-12-24 13:18 *장수 7:5점
길을 가다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은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내가 알바하고 있는 키즈카페에서도 6-7살 정도 되어보이는 아이가 2플립을 들고다니고 아이폰 15, 애플워치 등을 착용하고 다닌다.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뛰여 놀기 보단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틱톡을 보고 있다. 아이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되어있는 데 어른인 대학생들은 얼마나 중독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줄 것이다.	총평: 이 논증문은 인터넷이 우리의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니콜라스 카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논증의 구조와 문장력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김양선 교수

개인별 상담

작성자:	작성일: 2024-04-1 23:32	조회수: 3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과 혼적을 찾아가며 연구를 진행하는, 고전적인 학문이다. 인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학문', '추상적이며 지루한 학문'과 같은 의견들이 지배적이며,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학문이다. 한자들은 인문학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지금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김양선 2024-10-08 00:34		

본문 2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설명하고, 본문 3에서 그 제도가 직면하는 갈등과 논란을 언급하는 구성은 OK.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부족 필요.	답	수정	삭제
본문 2: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 가능성이 커졌지만, 고통을 동반한 삶의 연장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적절한 질문. 치료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예를 들어, 특정한 연명의료 기술(예: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의 사용과 그로 인해 연장되는 고통스러운 삶의 예시를 들면 좋겠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구체적인 기능을 더 설명해야 함. "병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내용, 환자도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간략하게 설명 바람.			
본문 3: 사회적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어떻게 논의 되었는지, 혹은 환자의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제시. 법적 및 윤리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윤리적 갈등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추가.			

김기우 교수

개인별 상담

<p>회할 수 없는 공격</p>	<p>(번호 3) User 2024-04-27 19:20</p> <p>• 흥미로운 제목 좀 더 물어서 써 보기</p>
<p>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13년 설 연휴, 한국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한 사건을 기억하는가.</p> <p>가족들이 모인 설 연휴, 아파트 발소리 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남성이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었진 30 대 형제 2 명을 살해, 형제의 아버지도 충격으로 사망한 연목동 추간소음 살인사건이다</p>	<p>(번호 4) User 2024-04-27 19:21</p> <p>• 접문을 홀문으로 쓰기</p>

좋은 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내용을 충분히 자기화하여 작성하고 있는 논증문. • 자연스러운 요약과 자신의 주장이 분명해져 좋음. • 단락 내용의 배분과 전개가 조화롭고 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 부분, 부연하기. - 추측성, 예측성 문장 보다는 현재 상황 논거로 삼아 주장하기. - 접문을 홀문으로 쓰기.

박진현 교수

개인별 상담

<p>사람들의 집중력과 창조력을 저해하는</p>
<p>요인으로서, 인터넷이 원인이 된다</p>
<p>문장정리 제니 주에 명성비도 지성명 개인</p>

<p>고 있다. 나는 이에 동의한다. 즉, <인터넷 사용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p>	<p>저자의 주장 내용이 틀리지 않게 자신의 주장은 쓴다.</p>
---------------------------------------------------------------------------------	--------------------------------------

심재욱 교수

개별 상담

<p>대학 글쓰기 수업에 Chat GPT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자</p>	<p>[메모:1] 인문과학연구소 2024-05-16 14:08 저녁이 주제문과 변별성이 없네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거나 압축적인 명사구 형식의 제목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p>
----------------------------------------	------------------------------------------------------------------------------------------------------------

일반 상담

<p>#6일자 꿀팁이라는 단어를 보자 지금껏 접한 많은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꿀팁이라해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기억도 생생합니다. 모든 꿀팁이 자신에게 맞는 옷은 아닌것 같습니다.</p>	<p>[메모:12] 인문과학연구소 2024-12-08 15:53 '꿀팁'은 '유익한 정보'라는 통념을 뒤집어 보는 관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두 번째 단락에 제언이 바로 나오는데 그 전에 낭패 본 경험을 상술하는 단락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p>
--------------------------------------------------------------------------------------------------------------------------	------------------------------------------------------------------------------------------------------------------------------------------------

정원채 교수

토론 개요서 상담

<p>1. 현재 투자가인 카이후 리는 일자리의 50%까지 감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인공지능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부 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고용 불안 증가시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3. 또한, 인해 일자리의 의미가 상실되며, 인간의 고유한 역할이 줄어들어 일의 본질과 가치가 희미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p>	<p>질문의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도록 말을 풀어볼 것. [메모:13] straw 2024-06-08 12:29 어떤 근거에서 이 같은 예측을 했는지 밝혀줄 것 [메모:12] straw 2024-06-08 12:28 표현의 의미는?</p>
-------------------------------------------------------------------------------------------------------------------------------------------------------------------------------------------------------------------------------------------------------------------------------------------------------------	------------------------------------------------------------------------------------------------------------------------------------------------

<p>사육, 관리, 실험 시설 유지 등의 비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의 행복(공격 시)/상대조의 예상 질문(방어 시) 제시 자료(공격 시)/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방어 시)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2637 ■ https://www.kmb.co.kr/article/view.asp?arcid=2022042001_1_5144618</p>	<p>[메모:14] straw 2024-12-07 07:58 7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함//질문이나 제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 있음//문이란 질문+상대조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질문 [메모:15] straw 2024-12-07 07:57 [당첨 1] 통틀 상원은 사육과 공기를 위해 필수적인(사육 구성원의 이익) [메모:16] straw 2024-12-07 07:58 질문의 형태 필요//신호의 매를 풀어주기</p>
--------------------------------------------------------------------------------------------------------------------------------------------------------------------------------------------------------------------------------------------------------------------------------------------------------------------------------------------------------------------------------------------------------	------------------------------------------------------------------------------------------------------------------------------------------------------------------------------------------------------------------------------------------------------------

이수현 교수

개인별 상담

<p>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 정보가 올바른 주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못해 길이 있는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글이 아닌 '영상'으로 음성으로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정보에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문해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교총은 7일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를 발표했는데, 교원 91.8%는 "저하됐다"고 했다. 실제로 이부자리, 곰탕, 가로동, 그 외 연어들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p>	<p>[메로기 susul] 2024-11-22 16:54</p> <p>저자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저자가 이미 제시한 근거를 또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합리적으로 총괄 심어 논증하기 바랍니다.</p>
---------------------------------------------------------------------------------------------------------------------------------------------------------------------------------------------------------------------------------------------------------------------------------------------------------	--------------------------------------------------------------------------------------------------------------------------------------------------------------------

일반 상담

<p>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1179/1200 bytes</p> <p>[어려운 것을 쉽게, 맞춤형 예는 PD]</p> <p>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되고 싶은 대상은 '쉽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은 듣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해 느끼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정분석을 통해 SW 공</p>	<p>[메로기] susul 2024-09-12 19:36</p> <p>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 써야 하는데 가장 되고 싶은 대상'을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그 3단락은 들은 대상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주제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쓰는 것이 좋겠으나, 앞으로 글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고자, 어떤 문장은 수정 방향에 대한 메모를 달아 놓았습니다.)</p>
-----------------------------------------------------------------------------------------------------------------------------------------------------------------------------------------------------------------------------------------------------------------------------	--------------------------------------------------------------------------------------------------------------------------------------------------------------------------------------------------------------------------------------------------

이한범 교수

개인별 상담

<table border="1"> <tr> <td>인</td><td>넷</td><td>사</td><td>말</td><td>장</td><td>국</td><td>적</td><td>민</td><td>방</td><td>석</td><td>력</td><td>적</td><td>적</td><td>한</td><td>양</td><td>업</td><td>이</td> </tr> <tr> <td>새</td><td>캐</td><td>터</td><td>인</td><td>프</td><td>트</td><td>아</td><td>래</td><td>카</td><td>인</td><td>니</td><td>트</td><td>카</td><td>스</td><td>사</td><td>가</td><td>김</td> </tr> <tr> <td>한</td><td>생</td><td>크</td><td>적</td><td>한</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수</td><td>통</td> </tr> <tr> <td>한</td><td>도</td><td>바</td><td>람</td><td>적</td><td>한</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수</td> </tr> <tr> <td>한</td><td>다</td><td>저</td><td>가</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 </tr> <tr> <td>종</td><td>사</td><td>카</td><td>우</td><td>터</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업</td><td>노</td><td>사</td><td>말</td><td>동</td><td>수</td><td>통</td> </tr> </table>	인	넷	사	말	장	국	적	민	방	석	력	적	적	한	양	업	이	새	캐	터	인	프	트	아	래	카	인	니	트	카	스	사	가	김	한	생	크	적	한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통	한	도	바	람	적	한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한	다	저	가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종	사	카	우	터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통	<p>HOME 2024-12-09 10:42</p> <p>원동적인 방식이던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 필요</p> <p>HOME 2024-12-09 10:42</p> <p>*생각하지 않는 사람들</p> <p>HOME 2024-12-09 10:43</p> <p>문사적인 말로 예고하지 말고 내용을 바로 작성 하던 겁니다</p>
인	넷	사	말	장	국	적	민	방	석	력	적	적	한	양	업	이																																																																																							
새	캐	터	인	프	트	아	래	카	인	니	트	카	스	사	가	김																																																																																							
한	생	크	적	한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통																																																																																							
한	도	바	람	적	한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한	다	저	가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종	사	카	우	터	업	노	사	말	동	업	노	사	말	동	수	통																																																																																							

일반 상담

<p>2024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자기개발계획서</p> <p>희망 해외취업국가 1지망 호주(멜버른) / 11.11 ~ 12.6(2차) 선택사유(1지망)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한인 사업가와 기업가들로부터 글로벌 인사이트를 받고 이를 바로 해외취업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p> <p>희망 해외취업국가 2지망 싱가포르/11.11~12.6(2차) 선택사유(2지망) 아시아 최대 무역지표, 해외영업과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는 제에게 시장조사와 기업분석을 통한 취업 전략 준비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판단하였습니다.</p>	<p>[메로기] HOME 2024-09-30 10:20</p> <p>지역이 아니고 시기인지요?</p> <p>[메로기] HOME 2024-09-30 10:29</p> <p>'해외영업과 마케팅'은 소비 시장이 넓은 곳에서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려했던 중상위에서 배우고 싶</p> <p>[메로기] HOME 2024-09-30 10:22</p> <p>호주를 선택한 이유와 상충하진 않을까요? 멜버른에서는 해외 창업에 필요한 -플랜을 수 받을 것으로</p> <p>[메로기] HOME 2024-09-30 10:33</p> <p>간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제목을 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번 질문에 쓴 것처럼 핵심 내용을 한 줄로 먼저</p>
----------------------------------------------------------------------------------------------------------------------------------------------------------------------------------------------------------------------------------------------------------------------------------------------------------------------------------------------------------------	--------------------------------------------------------------------------------------------------------------------------------------------------------------------------------------------------------------------------------------------------------------------------------------------------------------------------------------------------------------------------

이현준 교수

개인별 상담

비행기를 타고 무려 1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탈리아 밀라노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자유여행이 아닌 패키지 여행으로 왔었다. 덕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바쁜 일정을 소화 시켜야 했다.(때문에 일주일 동안 패키지 일정에 맞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가족여행의 첫 시작은 공항이 있던 밀라노에서 시작을 했다.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밀라노 대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대성당을 보기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일반 상담

처음 계약할 때는 잘 몰랐는데 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때는 5년으로 짧았어요. 사업이 종료되고 몇몇 건물주분들의 월세를 좀 높게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에다가 건물을 옮길 거니까 계약약을 못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거기 상권이 많이 죽은 상태라... 대부분은 나간 계획을 하고 계시죠.(백성찬)

이모리 grand 2024-10-23 08:36

말씀드립니다. 가운데점을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맥의 문자표에 있는 말줄임표를 사용하세요. 가운데점 3개, 6개, 9개를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기 권장합니다. 이후 수정은 따로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채경민 교수

개인별 상담

결론적으로 정보 수집가의 역할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수집가와 지식 생산자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위에서처럼 '정보 수집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다음 '지식 생산자' 또한 중요하니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 독자를 설득력하기 어렵습니다. '지식 생산자'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확보를 통해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손쉽게 가짜 뉴스와 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딥페이크 등의 기술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표현을 수정해보세요).

본 저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지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